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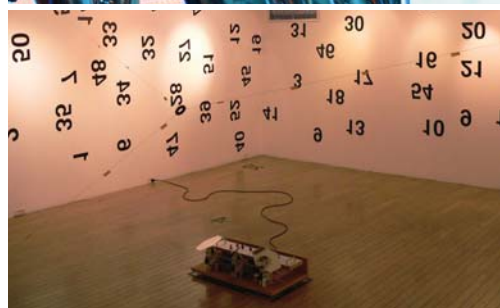
COVER STORY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한강...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의 대하(大河)에
 이번에는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이 흐른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뜨거운 물줄기를 따라나서라.
 2008년, 한강이 꿈꾸는 또 하나의 기적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지금이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08년 8월 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안호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130-823)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lac.or.kr
 디자인·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TEL 02)2264-5298 스튜디오 Seouleye TEL 02)543-5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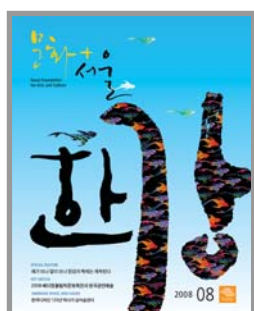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contents

August 2008

06	IMAGE ESSAY	삶과 죽음, 빛과 어둠, 부모와 자식... 상반된 의미가 아닌 끝없이 순환되는 것이 아닐까?
08	COLUMN	한여름 밤의 선율
10 14	SPECIAL FEATURE	한강에서의 뱃놀이, 물놀이를 기대하며 해가 뜨나 달이 뜨나 한강의 축제는 계속된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 프리뷰
24	VIEW POINT	“한강에서 서울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로저 린드 감독과 정연주 아나운서의 인터뷰형 대담
32 36 41	YOUNG ARTIST	실재와 가상 사이 새로운 공간을 열다 이현진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낭만과 이성의 시대에 산다 연출가 성기웅 기계와 인간의 시선이 교차할 때 최병일의 시각 기계
48 54 58 62	HOT SKETCH	2008 베이징올림픽문화축전의 한국공연예술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북경올림픽기념 중국초청공연 review 젊은 예술가들의 향연 - NArT 실연 심사장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 문래동 현장에서
68	EMERGING SPACE, NEW VISION	한국디자인 120년 역사가 살아숨신다 근현대디자인박물관
72 78	CULTURAL SPACE IN SEOUL 재단사업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익선동 한옥마을 서울의 옛 발자취를 따라서 2008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86	문화 캘린더	8월의 재단행사 및 공연일정
88	재단 소식	
93	독자엽서	



COVER STORY

Han River washed away our sorrows...

In the river of miracle which surprised the world,
We now can see the joyful laughter which makes everyone happy.

Let us follow the water stream which runs across Seoul.

2008, the year we dream yet of another miracle,
Is here now, the Day of Festival.



contents

August 2008

06	IMAGE ESSAY	life and death, light and darkness, parent and child Maybe it is an endless cycle and not a conflict?
08	COLUMN	Melody deep into a summer night
10	SPECIAL FEATURE	In expectation of boat ride, swimming in the Han River
14		Festival at Han River continues day and night Hi Seoul Festival 2008 Summer Preview
24	VIEW POINT	"We hope every citizen in Seoul will be able to laugh at Han River" Interview between Director Roger Rynd and announcer Ms. Yeun Joo Jung
32	YOUNG ARTIST	New opening between actual and virtual worlds, Interactive Media Art by Hyun Jin, Lee.
36		Live in a world of romanticism and logic, Director, Kee Woong, Sung
41		When the glances of machine and human cross, Visual Machine by Byung Il, Choi
48	HOT SKETCH	Play in Korea Performance by Beijing Olympics Cultural Festival
54		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 review of Chinese Performance in commemoration of the Beijing Olympics
58		Entertainment by young artists – NArT live show audition room
62		'Art project without boundary' at Moonrae dong site
68	EMERGING SPACE, NEW VISION	Korean design, 120 years of history alive, Modern Design Museum
72	CULTURAL SPACE IN SEOUL	Don't say goodbye, Iksun dong,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e village
78	FOUNDATION BUSINESS	Follow the footsteps of ancient Seoul 2008 Seoul Culture and Arts Exploration Project
86	CULTURAL CALENDER	Foundation Event in August, date of performance
88	NEWS ABOUT FOUNDATION	
93	LETTERS FROM READERS	



〈The Starlight-경주〉#09 경주, 경성북도, 2006, C-Print

삶과 죽음, 빛과 어둠, 부모와 자식...

상반된 의미가 아닌 끝없이 순환되는 것이 아닐까?



〈The Starlight-경주〉#20 경주, 경상북도, 2007, C-Print

이원철 (Lee, Won-Chul), 2007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 전공 졸업, 2002 RMIT University, Photography 전공 졸업, 1999 서울예술대학 사진전공 졸업
 개인전 2007 'The Starlight-경주' - 갤러리 진선 (서울)
 그룹전 2008 'The Big and Hip_ Korean Photography Now' - 노화랑 (서울) / Young Portfolio Acquisitions 2007 - Kiyosato Museum (일본)
 2007 '자연교감 & 공간공감' - DECOYA (서울)
 2006 'ART OF FOCUS' - SOKA Contemporary Space (북경)



한여름 밤의 선율



해가 지고 나면 하늘은 순간 더 푸르러진다. 그 여명의 푸른 하늘 위로 하얀 비행 꼬리선이 그려진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다. 천천히 조명이 켜지고 청중들의 눈과 귀는 무대로 향한다. 무대 위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등장한다. 곧 이어 지휘자가 무대 중앙에 선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더니, 지휘자의 손이 허공을 가른다. 이윽고 피아노 선율이 무대를 넘어 객석까지 일렁인다.

어느덧 밤이 찾아왔다. 야외 공연장 지정 좌석을 넘어 잔디 언덕까지 청중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샴페인을 권하는 친구들, 꼭 부둥켜안은 연인들, 다정스레 샌드위치를 먹는 가족들, 평화로이 잠든 아기들, 손을 꼭 잡은 노부부들. 그들의 잔영은 바이올린이 되고, 클라리넷이 되고, 드럼이 된다. 그 모두가 버무려지고 튕겨지어 소곤거리고, 웅알거리고, 재잘거린다. 오케스트라, 청중, 자연이 한 데 어우러진 한여름 밤의 야외연주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르익어만 간다.

15여 년 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체험한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의 여름 야외연주회 풍경이다. 연주회 장소는 도심 속 공원에 마련된 야외 공연장이었다. 연주회 티켓은 그 지역 신문에 난 쿠폰을 오려 해당 신문에 보내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좌석이 무료는 아니었지만 잔디 언덕에 마련된 천장 없는 객석은 무료였다. 그리 넉넉지 못한 유학생 형편인 탓도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한 그날의 공연은 특별히 흥겨우면서도 감동적이었다. 그 흥겨움과 감동은 비단 음악으로부터 온 것만은 아니었다. 별과 하늘과 바람이 함께 한 덕분이었다. 공연장을 나서며 우리 가족에게 향연을 베풀어준 낯선 도시에 감사했다.

무더운 여름이다. 열대야로 몸살을 앓던 시민들은 한강과 수부지로 나가 밤새 뒤척인다. 이럴 때면 한 줄기 소나기에도 목이 마르다. 소나기처럼 하늘이 내려주는 물리적 청량제도 간절하지만 문화가 선사하는 심리적 청량제는 더욱 반갑다. 자동차의 굉음, 매미의 악다구니, 등줄기의 땀을 잠재우고 식혀줄 한여름 밤 음악의 청량제는 어디 없는가.

요즘 도처에서 야외 연주회가 곧잘 열린다. 국제적 야외 음악 페스티벌도 눈에 띈다. 반갑고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행사가 휴가지 중심으로 열린다는 점이다. 여름이 오면 기다려지는 야외 음악회가 서울 가까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면 좋을 것이다.

한강고수부지, 서울 숲, 북한산 자락 등에 야외 연주장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기존의 공터나 운동장에 의자를 놓고 임시 야외 연주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나 전용 야외 연주가 있어야 연주자나 청중 모두가 편할 것이다.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 옆에 야외 공연장을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는 상태다.

야외 연주장은 친근하고 다정한 형태로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나치게 고급스러워서 시민과 정서적으로 멀어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 야외 공연장에서 무료 공연도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연의 바람 아래 음악의 선율로 자유로이 먹을 감는다면 그만한 더위사냥이 어디 있겠는가. 좀 더 친근하면서도 흥겨움과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 행사가 더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김진엽(서울대 미학과 교수)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된다.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음악’이라는 청량제는 어떨까. 더위를 가르는 시원한 선율은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한껏 들뜨게 할 것이다.



한강에서의 뱃놀이,
물놀이를 기대하며



지난 세기, 강을 가진 전 세계의 도시들은 강을 중심으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놀이공간으로, 역사공간으로, 관광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수변 공간의 활용실태를 살펴보고 한강이 향후 친수공간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한강, 서민 문화의 즐거운 발상지

한강은 긴 역사에 걸쳐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즐기는 열린 공간이었다. 신윤복과 겸재 정선의 그림에서, 한강수타령에서,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시조에서 우리는 한민족의 멋과 여유를 읽을 수 있다. 또 한강은 서민들의 놀이공간이었다. 서민들은 낚시, 연날리기, 팽이놀이, 물싸움, 돌싸움, 팽이치기, 부부 쌍쌍여놀이, 살곶이벌 매사냥과 열무, 송파산대놀이, 대동놀이, 세시놀이, 몽촌답교놀이를 하며 즐거움과 희열을 만끽했다.

그러나 과거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문화예술 창작의 현장이며, 놀이 공간이기도 했던 한강은 무분별한 도시화와 개발로 '보기만 하는 강', '아파트 병풍에 갇혀버린 강', '도로로 단절되어 접근하기 어려운 강'으로 전락하였다. 최근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통해 한강 주변 역사문화공간을 회복시켜 창조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놀이 공간의 회복과 놀이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재현이다. 이와 더불어 한강이 서울시민의 것만이 아닌 세계인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장 화려한 뱃놀이-프랑스의 아르마다 범선축제

그렇다면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럽 주요 수변도시들의 뱃놀이와 물놀이는 어떠한가? 프랑스 센 강, 루아르 강, 론느 강, 영국 템즈 강, 이태리포 강, 포르투갈 두로 강, 벨기에 므즈강, 독일 라인 강, 다뉴브 강 주변 도시들에서는 매년 뱃놀이, 물놀이를 발굴하고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시민들에게는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고,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변문화의 발굴과 개발은 지역경제발전의 일익을 맡고 있다.



센강 아르마다 범선 축제

자료출처 : <http://www.armada.org/Photos/Souvenirs-2008-14-Juillet-61.htm?page=1>

뱃놀이 축제 중 가장 화려한 행사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 루앙시의 센 강에서 진행되는 아르마다 범선축제일 것이다. 이 행사는 지난 1998년에 시작되었다. 전 세계의 전통 대형 범선들이 총 집결하여 진행되는 이 행사는 매 4-5년 주기로 10여 일간 이어진다. 과거 노르망디 지방 항구 르아브르에서 파리방향으로 넘나들던 뱃길을 이용하는 뱃놀이를 재현하고 있다. 행사 첫해인 1989년 16개국에서 참여하였고 4백만의 관광객이 찾았다. 2003년 행사에는 30여 개국에서 50여대의 대형범선과 현대식 전함 1척이 참여하였고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으며, 26개국에서 이 행사를 중계하였다.

행사기간 루앙 시 강변과 도심 거리에는 전통과 현대 복장을 한 선원과 해군들의 퍼레이드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진행된다. 박물관에서는 물놀이, 뱃놀이 등 특별 전시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야간에는 불꽃놀이와 각양각색의 공연이 곳곳에서 이어진다. 범선주변에는 콘서트장이 열리고 선상방문과 범선들을 임시 개조하여 레스토랑 또는 파티장으로 활용하는 감각도 돋보인다. 행사기간 동안 선상, 강변 그리고 도심에 이르기까지 축제와 축제인파로 끊임없는 열광과 흥분이 길게 이어진다. 또한 전 세계에서 모인 배들이 약 120킬로미터 정도의 바다와 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퍼레이드 광경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강변에서 즐긴다.

그런가하면 선상 창찌르기 시합은 기원전 25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물놀이 중 하나로 오늘날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지에서 강물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이 물놀이는 두 대의 배를 가까이 접근하게 한 후, 각 배의 일원 중 한명씩 창으로 물로 상대방을 찌르려는 경기이다. 대표적으로 혼느 강의 지보르시는 매년 여름마다 선상 창찌르기 대회를 개최하여 프랑스 챔피언을 뽑고 있다.

수많은 축제인파의 집결지-런던 템즈강 축제

영국의 템즈 강 또한 수변문화행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뱃놀이 축제가 유명하다. 헨리 로얄 요트 레이스는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매년 6월 첫 번째 주 5일간 헨리와 템즈 사이에서 진행된다. 이 요트 레이스는 전 세계 유명 선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워블던 테니스 경기만큼 잘 알려져 있다. 레이스 기간 동안 다양한 예술행사가 동시에 열리며 이 지역 특산의 음식행사까지 진행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1998년부터 시작한 템즈 강 축제는 런던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웨스트민스터 브리지와 타워 브리지 사이 강, 둔치, 인접 도심에서 진행된다. 2007년의 경우 이틀 동안 75만 명의 관광객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었다. 런



서울을 가로지르는 대하, 한강에서
서울시민과 전 세계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와 교류의 장을 만들자.
한강은 이제 '기적의 강'에서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또 한번의 변신을 꿈꾼다.
한강의 넓고 큰 품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곳에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있다.



영국 헨리 수변문화 축제

자료출처 : <http://www.henley-festival.co.uk/images/gallery/T235.jpg>

많은 시민과 세계 관광객들이 이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 강변에 집결한다. 타미즈강변에는 3.5킬로미터의 예술작품 전시 갤러리를 열어 전 세계 강을 주제로 한 작품 경연이 계속되고, 강변 바자르 행사로 350개 국가의 음식 먹거리 잔치와 더불어 각종 수공예 작품이 전시 판매된다.

서울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

과거 유럽의 주요도시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모든 관심이 '물'에서 '물'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겪었으나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다시 '물'로 돌아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 즉 강은 생명을 탄생하고 문화를 일구며 문명을 발상시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가꾸고 감성을 풍부하게 하였던 곳이기 때문이다.

던의 템즈강 축제는 런던 최대의 이벤트다. 길거리와 강변에서 댄스, 음악 공연, 영화 등 마시고 먹고 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템즈강 축제에서 가장 인상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우드워크 브리지 위 300여미터 길이의 테이블에 런던과 세계의 음식을 차려놓고 시식하는 행사다. 야간 조명축제를 위해 세계 2500여명의 전문가들이 조명과 불꽃으로 템즈강의 빛을 디자인한다.

300여개가 넘는 각종 배들은 타미즈까지 선박 마라톤 행사를 하며, 50여대의 범선들은 그린위치에서 타워 브리지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수

한강, 넓고 큰 대하. 지금은 너무 넓다 못해 텅 비어 보인다. 그러나 한강의 큰 품은 많은 것을 모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으로 서울의 미래를 약속한다. 이 넓은 한강에서 서울시민과 전 세계인들이 각종 뱃놀이와 물놀이, 전시와 퍼레이드를 열고 선상과 강변에서 그들의 음악과 춤, 공연과 전통음식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행사들이 이어진다면, 한강은 '기적의 강'에서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거듭날 것이다. 한(漢)류에서 한(韓)류를 흐르게 하고 문화를 넘어 문명을 흐르게 할 것이다. 

글 홍석기(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해가 뜨나 달이 뜨나 한강의 축제는 계속된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 프리뷰

각종 언론 매체에 따르면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경비 부담으로 상당수의 서울 시민이 올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보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 중에는 심지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발목이 잡혀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서울에 남은 자들에게 신나는 여름을 선사할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가 여의도, 선유도, 뚝섬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 여름 한강변을 뜨겁게 달굴 여름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漢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열리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를 통해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수상 레저 프로그램이, 저녁에는 짜증나는 일상과 열대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찾는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서울은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 축제의 도시, 진정한 휴양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서울은 한여름에 '떠나고 싶은 도시'가 아닌 '찾고 싶은 도시'가 된다.

한강의 오후

무더운 한여름의 오후,
한강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시민참여 레포츠 프로그램

하늘 높이 더위를 날려버리자! -제1회 한강 버드맨 대회

<제1회 한강 버드맨 대회>는 눈앞에 펼쳐진 푸른 강과 파란 하늘을 향해 새처럼 도약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즐거운 기회다.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을 한껏 펼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무동력 멀리 날기 대회로 8월 9일, 10일 양일간 여의지구 특설 점프대에서 펼쳐진다. 파랗게 펼쳐진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오르며 느끼는 여름 한강의 차가움은 삼복더위를 한 땀에 날려버릴 것이다.

시원한 놀이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을!

-워터파크&하늘조각 체험전

<워터파크>는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지고 시원한 놀이공간이다.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30m 길이의 터널형 Cool존은 차가운 물안개가 뿜어져 나와 한낮의 열기를 식힌다. 대형 공기풍선으로 만들어진 물 미끄럼틀을 이용한 탈기리들은 어린이 뿐 아니라 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단연 <하늘조각 체험전>이다. 홍콩 등 해외 유명도시를 거쳐 이번 축제에서 한강변에 설치된다. <워터파크>에 설치되는 '하늘 조각'은 스프링처럼 텐션이 있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특수 소재와 폐자재를 활용한 시민체험 놀이기구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즐거운 놀이공간이 될 것이다.



가까운 사람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자!-로맨틱가든

낭만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이 선유도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서울에서 자연 생태 체험이 가능한 선유도. 그곳에서 섬 자체의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포토존 <로맨틱가든>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한여름의 추억을 예쁜 사진에 담을 수 있게 하였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4일 간에 걸쳐 움직이는 나무처럼 분장한 뮤지션들이 등장해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한여름의 선유도는 축제 기간 중에 가족, 친구, 연인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

한낮에 도심을 흐르는 재즈 선율-재즈인더썬

30도를 넘나드는 서울의 낮, 내리쬐는 햇볕에 시민들의 몸과 마음은 쉽게

지치지 마련이다. 모두가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8월, 떠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한낮의 음악회가 바로 여의도에서 열리는 <재즈 인 더 썬>이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펼쳐지는 국내외 재즈와 라틴 밴드들의 작은 축제 <재즈 인 더 썬>은 재즈선율로 무더위를 깨끗이 날려버릴 것이다.

시민에게 한결음 더다가가기-서울거리아티스트공연

선유도 원형 소극장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들을 만나 보자. 서울의 거리를 예술적으로 바꾸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감흥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서울거리아티스트'는 관람자 밀착형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 호평 받았다.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서울거리 예술가들 중 엄선된 예술가들의 공연이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름축제의 피날레-한강카누축제

<한강카누축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7일간의 카누체험과 용선·카누경주로 구성되어 있다. 25개 자치구 예술단의 신명나는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축제 중의 축제로, 한강에서 멋들어진 카누를 무료로 즐기는 체험행사 '카누체험'을 비롯해, 자치구에서 모집한 시민팀과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한 타시도 주민 팀, 외국인 팀 등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용선카누경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한강카누축제>는 열광적인 환호와 응원 속에 펼쳐지며 하이서울페스티벌 여름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한강의 저녁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환상적인 퍼포먼스 행렬-한강퍼레이드

서울 곳곳에서 게릴라 퍼포먼스를 벌이던 이들이 한곳에 모여 진기한 행진을 보여준다. 게릴라 퍼포먼스는 축제 전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사전행사이다. <한강 퍼레이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게릴라 퍼포먼스에서 보여주던 유쾌, 발랄, 신명나는 퍼포먼스들이 한강변에서 집합해 환상적인 행렬을 펼치는 장이다. 축제 기간 동안 이어져 진행되는 <한강퍼레이드>는 여의도 공원에서 강변무대까지 8월 9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출발한다.

비상(飛上)하는 연주자들-한강 환타지쇼

만화애나나옴직한 거대한 인형들이 하늘을 떠나니며 여의도 강변 무대를 둘러싸고 있다. 현란한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음악가들은 피터 팬처럼 무대 위를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곡예를 하는 음악가들과 아찔한 공중 묘기를 선보이는 무용수들은 거대하고도 환상적인 영상을 배경으로 무대를 휘젓는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현란한 움직임이 당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한강 환타지쇼>다. 아찔하고도 현란한 공중곡예는 신나는 음악, 화려한 영상과 만나 가슴 벅찬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기계와 인간이 만나는 지점 - 몬스터 발레

거대한 중장비들이 발레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춘다. 〈몬스터 발레〉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진화해 가는 기계의 움직임들 통해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몬스터 발레〉는 세계 메이저 발레단인 현 파리국립오페라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남자무용수로 알려진 김용걸이 처음으로 안무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열정의 콘서트 무대 -보이스 오브 더 리버

우리에게 친숙한 가수들이 매일 밤 열정이 넘치는 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이다. 4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총 16팀이 관객들에게 음악을 선사한다. 8월 9일과 10일은 라이브 데이 (Live Day)라는 주제로 각각 남성 보컬과 여성보컬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 8월 9일에는 이상은, 아일랜드시티, 강허달남, 벨라마피아 등 가창력있는 실력과 여성 보컬들의 파워넘치는 무대가 열리고, 8월 10일에는 강산에, 세렝게티, 보드카레인 등 파워풀한 남성 보컬밴드들의 신나는 공연이 진행된다. 평일에는 열정적인 음악스카와 레게, 락큰롤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한여름밤의 댄스 파티 -믹스잇업! 댄스DJ!

트렌드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패션쇼, 인간 움직임의 한계에 도전하는 아크로바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섹시 댄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을 환상적인 사운드! 〈Mix it up! Dance DJ!〉는 인터랙티브 영상을 배경으로 진정된 파티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Mix it up! Dance DJ!〉에서는 오감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열대야에 시달리는 답답한 여름, 잠시나마 젊음을 만끽하고 숨어 있는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면 강변무대를 찾아보자.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볼거리들이 당신의 밤을 잊게 만들 것이다.

한강에 흘러보내는 선율-물 위의 오케스트라

선유도에 밝은 오렌지 빛 석양이 내리고 저녁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곧 셋별이 빛나고 그 아래에서 부드러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된다. 60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물 위의 오케스트라〉는 강 위로 로맨틱한 선율을 흘러보낸다. 다이내믹하고 열정적인 무대보다 잔잔하고 고즈넉한 여름 저녁을 원한다면 선유도로 가보자. 당신의 감성을 채워줄 클래식 음악들이 반겨줄 것이다.



한층 더 축제를 즐기려면?

일상에서 혹은 온라인에서도 한강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축제를 풍성하게 하는 다양한 연계행사들을 만나보자.

눈을 번쩍 떠보면, 그들이 보인다! -게릴라 퍼포먼스

무료한 일상 그리고 무더운 여름. 누구나 한 번쯤 일탈을 꿈꾸는 이 때, 나른해진 눈이 번쩍 뜨이는 광경이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진다. 물고기 분장을 한 '피쉬맨'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서울광장을 활보하는가 하면,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선 신기한 키다리들이 그 뒤를 따른다. 하늘 위를 떠다니는 천사와 '아쿠아맨'도 있다. 〈게릴라 퍼포먼스〉(7월19일~8월17일)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미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들의 돌발 행동은 〈한강퍼레이드〉로 이어져 축제 마지막 날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어디서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곳 -나의 신기한 서울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는 직장인 김 모씨, 땅 끝 마을에 사는 최 모양, 바다 건너 A타운에 살고 있는 J 모군까지. 서울에서만 개최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동참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하이서울 페스티벌 홈페이지(www.hiseoulfest.org)를 방문해보자.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이버 온라인 축제 〈나의 신기한 서울〉이 기다리고 있다.

시원한 수상레포츠와 함께 -한강사랑레포츠 페스티벌

무더위에 지쳐 강변을 찾은 시민들에게 더위도 이기고 재미있는 놀이도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강사랑 레포츠 페스티벌〉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의 연계행사로 진행된다. 〈한강사랑 레포츠 페스티벌〉은 무더운 여름, 멀리 산이나 계곡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한강에서 즐기는 시원한 수상레포츠 체험과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친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한강 횡단수영대회

서울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한강과 함께 하는 〈아리수 미라클 축제〉는 생명의 나무와 물이 만나 도전과 꿈 그리고 강을 표현하는 관광테마축제다. 그 중에서





도한강을 건너는 〈한강횡단수영대회〉는 지난해 진행된 ‘도전과꿈, 한강수영대회’가 전신으로, 대규모의 정렬적인 참가자들이 잠실지구에서 출발하여 뚝섬까지 헤엄쳐가는 횡단 프로그램이다. 폭 1.6km 구간을 수영으로 건너는 〈한강횡단수영대회〉는 한강을 가로지르며 도전정신을 키우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에는 여름을 즐길만한 이렇다 할 문화상품이 없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이스쿨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를 통해 한강의 문화적 잠재력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한다. 한강을 무대로 펼쳐지는 한여름 물의 축제. 오랜 시간 말없이 우리의 일상을 흐른 한강이 지금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즐거운 놀이공간으로 단장한 한강으로 서울시민 천만을 초대한다. 

자료제공 축제지원팀 정리 홍보마케팅팀



|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 일정표 |

행사장			8.9(토)	8.10(일)	8.11(월)	8.12(화)	8.13(수)	8.14(목)	8.15(금)	8.16(토)	8.17(일)				
사전거리행사			7.19~8.17 10:00~22:00 / 게릴라 퍼포먼스							게릴라 퍼포먼스					
메인 행사	여의 지구	강변무대	12:00~19:00 / Jazz in the Sun							Jazz in the Sun					
			20:00~21:00 / 한강 환타지쇼					20:00~23:00 / Mix it up! Dance DJ							
			21:00~21:30 / 몬스터발레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					
			21:30~23:30 / Voice of the River												
			여의도공원 ~강변무대		19:00~20:00 / 한강퍼레이드							한강퍼레이드			
		특설점프대		10:00~19:30 제1회 한강 버드맨 대회											
		마포대교 남단		10:00~20:00 / 워터파크										워터파크	
									10:00~20:00 / 하늘조각 체험전						
						14:00~18:00 / 한강카누축제 (카누체험행사)							13:00~18:00 한강용선경주		
		선유도	원형소극장						16:00~18:00 / 서울거리예술가공연						
	선착장무대		19:00~20:00 / 물 위의 오케스트라												
	선유도 내		상설 / 로맨틱 가든												
	온라인	홈페이지	7.10~8.17 / 나의 신기한 서울												
	연계 행사	독섬	한강공원 독섬지구	13:00~22:00 / 2008 한강사랑레포츠 페스티벌											
			잠실지구 ~독섬지구		09:00~18:00 한강횡단 수영대회										

몬스터 발레 - 전통 발레와 거대한 중장비의 만남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 메인행사의 하나인 <몬스터 발레>는 세계 최정상급 솔리스트 발레리노 김용걸이 국내에서 첫 단독 안무하는 작품으로, 육중한 기계와 인간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움직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데몬스트레이터(Demonstrator) 이정달(41세, 볼보 건설기계)을 리더로 볼보건설기계 중장비 시연팀이 섬세한 굴삭기 조종을 선보이고 국립 발레단 무용수 9명과 호주출신의 아크로바틱 무용수 Kate가 등장, 환상적인 몸짓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강개발의 역사 속 인간과 환경의 조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번 작품에 대해 김용걸은 “평소 극장무대예술을 접하기 쉽지 않았던 관객들에게 이 새로운 도전의 열정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강에서 서울시민 모두가



로저 린드 감독과 정연주 아나운서의 인터뷰 형 대담

서울의 안과 밖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의 예술 감독을 맡은 로저 린드다.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에서부터 이번 여름축제에 관한 이야기까지 TBS 교통방송 정연주 아나운서와 함께 들어보았다.

Roger Rynd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버벅거린다.’ 사전에도 제대로 등재되지 않은 의태어다. 한국 사람이 아니면 쉽게 웃지도 공감하지도 못할 이 단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외국인 있다.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으면서 한국 사람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사람, 바로 로저 린드(Roger Rynd, 49)다. 로저 린드는 이번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의 예술 감독을 맡아 한창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한국과 무척이나 친했던, 첫 외국인 예술감독

호주인인 그는 한국인만큼이나 한국에 관심이 많다. 한국에 조금이라도 애정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면 단연 좋아한다고 말하는 된장찌개쯤은 그에게 너무 일상적인 음식이다. ‘된장찌개를 나보다 더 잘 끓이고 좋아한다’는 아티스트 코디네이터 최수연(최수연 씨는 이날 통역으로 자리에 함께하며 로저와의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담을 들려주었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춘천 닭갈비, 개고기, 심지어 산낙지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인인 그가 어떻게 한국과 인연을 맺고 축제 예술감독까지 맡게 되었을까. 그와 한국의 업무상(?) 인연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극단 REM의 예술감독(1985~현재)으로 서울 ‘라트 어린이극장’의 예술감독을 맡으며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했다. ‘라트 어린이극장’은 어린이 영어연극 전문극장이다. 한국의 영어 교육



TBS 교통방송 정연주 아나운서

열풍 탓인지, 로저 감독은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다.

“일곱 살배기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저처럼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 사이에서 로저 린드 감독은 꽤 알려진 분이세요. 쑥쑥 어머니회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정연주 아나운서의 말에 그는 자신도 쑥쑥 어머니회를 안다며, 한국 어머니들의 힘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한국 어머니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꾸준히 이국땅에서 어린이 영어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예삿일은 아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은 그가 먼 이국땅에서 영어로 된 어린이 연극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접하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는 피지에서 살기도 했죠. 저의 부모님 역시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실 줄 압니다. 어린 시절 환경이 저에게 타문화나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는 ‘크로스 컬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로저 린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축제 사상 첫 외국인 예술감독이다. ‘첫 외국인 예술감독’을 맡게 된 소감이 어떠한지는 정연주 아나운서의 질문에 그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큰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이자 선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증류된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더욱 알찬 축제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한국에서 작업을 해 왔다는 점은 이번 축제에도 여실히 들어날 것이다. 과거의 다양한 작업 경험이 이번 축제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연주 아나운서가 물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는 ‘증류(distillation)’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증류’란 액체를 가열하여 생긴 기체를 냉각하여 다시 액체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그는 ‘이전 작업이 다음 작업에 녹아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수한 액체를 얻을 수 있듯, 그에게 작업의 경험은 다음 작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동력이다. 이번 여름축제에서 ‘증류’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바로 ‘몬스터 발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20주년 기념 공연에서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건축 당시 사용했던 건축 기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연했지요. 한국에서도 유서 깊은 건물-예를 들면 국회의사당과 같은 을 지을 당시 사용했던 기계들을 동원해서 연출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니다. 시드니의 것과는 다르지만 김용걸 씨와 함께 ‘몬스터 발레’를 기획했습니다. 인간과 중장비 기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이지요. 앞으로 한 차원 더 높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축제 기획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훌륭한 것만큼 아이디어를 현실



왼쪽부터

정연주 아나운서(TBS 교통방송)

최수연(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 아티스트코디네이터)

로저린드(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 예술감독)

화하는 작업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디어와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을 테다. 이번 축제를 기획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는 정 아나운서의 질문에 로저 감독은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에 비유했다. “큰일을 진행하든 작은 일을 진행하든 언제나 자신의 아이(아이디어)를 죽여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을 떼어 내고, 다리를 떼어내야 하는 아픔이 있

었지요. 아이디어나 콘셉트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축제의 준비 과정에도 이런 일이 없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많은 편이었나요?” 정 아나운서가 조심스레 질문했다. 로저는 “모든 희생(kill)은 더 나은 것을 위해 필요하다”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축제를 보는 사람에 대한 고려라고 했다.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열정을 다해 뛰거나 편안하게 즐기거나

그렇다면 여름이라는 계절에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짜인 프로그램의 면면은 어떠할까. 크게 공연과 레프츠로 꾸며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 효과를 묻는 정연주 아나운서

에게 그는 '완전히 (축제를 즐기면서) 정신이 나가길 원하는 사람이나,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염두해 두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축제와 함께 광란의 여름을 보낼 사람들을 위해 '믹스 잇 업! 댄스DJ' 프로그램을 추천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클럽을 만들 예정입니다. 패션도 있고 곡 예도 있습니다. 그냥 서서 위를 쳐다보면 하늘에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봄축제 프로그램인 '팔색무도회'와는 또다른 성격의 도심 야외 클럽이 되는 셈이다. '믹스 잇 업! 댄스DJ'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두루두루 포진해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에서부터 기계체조 같은 곡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소 동적인 축제 프로그램에 과연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정연주 아나운서가 시민들의 반응을 궁금해하자, 로저 감독은 한국인의 '열정'을 언급했다. "한국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한강에서 무장(?)을 하고 운동하는 아주머니들을 보세요. MT는 또 어떤가요. 저는 사실 MT가면 하는 신고식이 참 재밌어요. 큰 소리로 자신을 외치죠."

이런 한국인의 열정을 고스란히 담은 프로그램이 바로 버드맨 대회란다.

"버드맨 대회에서 한국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버드맨 대회는 미친 듯이 뛰어서 멀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은 '얼마나 멀리 가느냐', '얼마나 웃기느냐' 등등 다양합니다. 해외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버드맨 대회는 멀리 날아가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지 못하는 펭귄 의상을 입고 나와 날자마자 떨어지기도 하지요. 반면 진지하게 날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사람보다 더 한강을 사랑하는 사람

이번 축제는 한강에서 열린다. 한강은 서울의 젓줄이자 한국 성장의 상징이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강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는 7년째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말로 한강이 가진 매력을 표현했다.

“한강에서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주변을 따라 걸어 보면 전혀 새로운 한강의 매력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대중교통을 타고 다리를 가로지를 때는 알 수 없는 매력들이 있지요. 한강에서 햇빛을 받으며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뚝섬, 선유도도 매우 아름답지요.”

그는 한강이 가진 자연미에 대해 극찬했다. 그런 로저 감독에게

정연주 아나운서가 자신이 가진 한강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 했다. “사실 한강의 이미지가 센 강 같은 유명한 강 같지 않다는 데 때론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민들 스스로 한강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로저 감독은 선유도를 보라며, “여름에 햇빛이 비치는 선유도는 아름다움을 발합니다. 한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곳에 가보면 한강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아나운서는 로저 감독에게 혹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봤냐고 물었다. “한국이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고 또 고도의 성장을 일궈냈다는 사실도 알고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의 동력을 통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목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한국인 선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던 그는 한강의 과거와 지금을 알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붕괴와 같은 위기 상황들을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잘 이겨냈지요. 저와 같은 외국인의 전례는 중요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뿐이겠지만, 한국인으로서 언제든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그에게 수도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개발로 인해 서울 본연의 모습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저는 이 도시가 망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청량리, 광화문 등 한국의 독특한 모습을 지닌 장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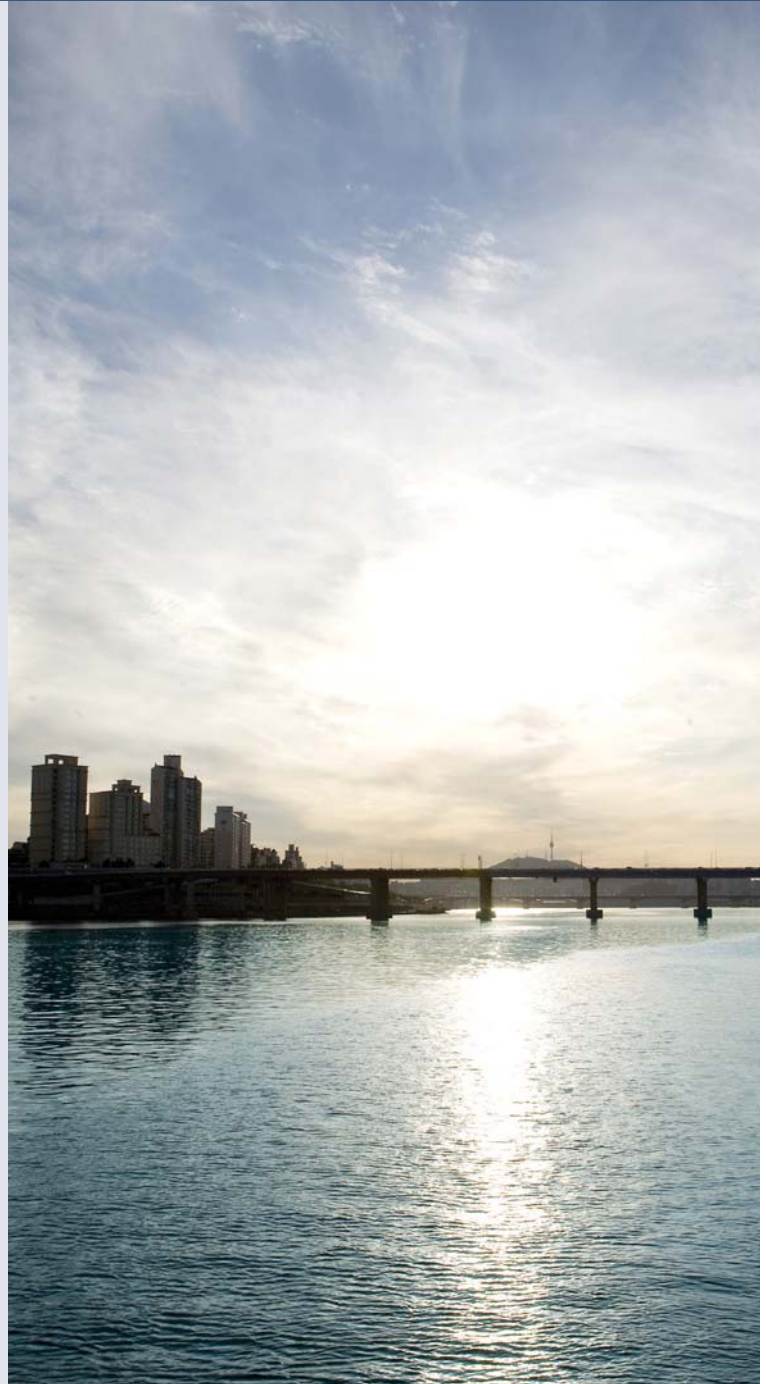
‘축구에 히딩크 감독이 있다면, 축제에는 로저 린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연주 아나운서는 마지막으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8 여름축제에 참여하는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부탁했다.

“사실 촛불 집회 등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이 시점이 축제 시기로는 적당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다른 에너지도 많이 느낍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한(恨)’의 정서로 보나 할 이야기가 많은 민족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집회)이 벌어진 것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아이들, 가족 그리고 이 도시에게 휴식을 주고 싶습니다.”

그의 답변을 들은 정 아나운서는 얼마 전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수 김도향 씨가 한 말을 떠올렸다. “김도향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 한 등을 풀어놓을 장소가 없다.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저 감독은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한강이 항상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기회를 한강을 통해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바람처럼 이번 하이서울 페스티벌 여름축제를 통해 서울 시민이 오랜만에 한껏 흥겨운 시간을 되찾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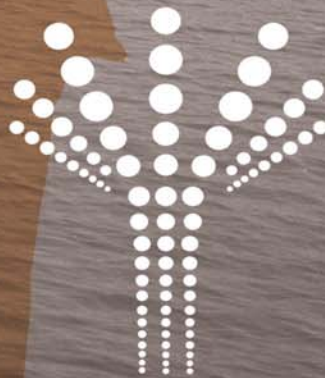
글 · 정리 전지영 기자





An aerial photograph of a city waterfront, likely San Francisco, featuring the Transamerica Pyramid and other skyscrapers in the background. A large, semi-transparent orange abstract shape, resembling a stylized bird or wing, is overlaid on the image. The text "YOUNG ARTIST" is centered in a black serif font. At the bottom, there is a white dotted graphic of a person with arms raised, and a pinkish-orange bridge structure.

YOUNG ARTIST



YOUNG ARTIST



실재와 가상 사이 새로운 공간을 열다

이현진의 'Corresponding' 과 인터랙티브 아트

실재도 아닌, 가상도 아닌 새로운 공간의 문을 열어주는 이현진. 그녀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는 예술작품과 작가의 틈에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넣으면서 새로운 인식의 공간을 연다. 그녀가 만들어낸 시공간은 실재와 가상, 주체와 대상이 서로 뒤엉킨 합성현실이다.

그것은 '혼돈'일까, '제2의 자연'일까.

예술가들이 관심을 쏟는 대상과 시각이 제각각인 만큼, 무수한 리얼리티 혹은 환영이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곤 한다. 이른바 합성리얼리티(hybrid reality). 그것들은 대부분 미디어에 의해 '빔아서 만들어진' (plastic) 것이며,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알고 보면 현대인은 현실과 꿈, 실재와 가상이 서로 얽혀 만들어내는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투명한 현실과 명료한 이성에 기반을 둔 정치와 경제, 허구를 견어낸 문화 등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오늘날에는 합성리얼리티의 생성과 진화의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아방가르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브제와 이미지의 절묘한 만남

이현진은 대학시절부터 이미지와 오브제를 통합하여 다른 종류의 리얼리티를 빚어내는 데 집중해 온 작가이다. 초기에 그녀가 주로 동원했던 것은 빔프로젝터의 영상을 오브제 혹은 조형물과 만나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은 오브제 위에 이미지라는 피부를 씌워서 다른 사물로 변장시키는 작업이라



상응 III
(Corresponding III), 2005
Two-Channel DVD
Projection Installation
(미국 뉴욕 Whitebox
갤러리 설치)
Corresponding III, 2005
Two-Channel DVD
Projection Installation,
installed at Whitebox,
New York

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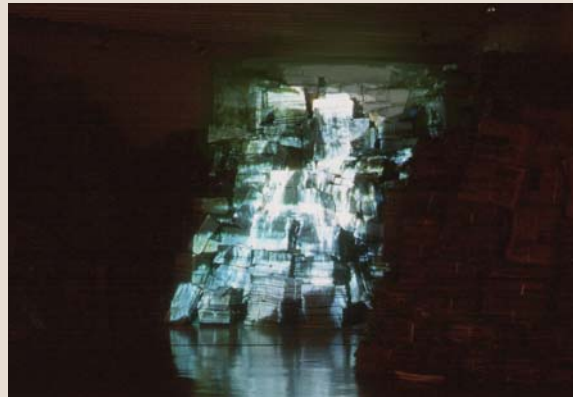
자연 상태에서 이미지는 원래의 오브제(=支持體)와 분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 눈앞에 폭포가 보이는 것은 그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시각예술사에서 이 관계는 오랜 세월동안 조금씩 변화를 겪어 왔다. 인간의 화장(化粧)과 같은 외관의 장식 그리고 도색이나 벽화(壁畵)의 단계를 넘어 이미지의 이동이 가능한 캔버스를 거쳤고, 카메라옵스큐라의 영상을 고작시킨 사진 그리고 현대의 디지털 이미지의 시대에 이르렀다. 이제 이미지는 원래의 장소와는 관계없이 이곳저곳 정보의 바다를 표류하며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른 얼굴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물이 되었다.

동'을 하게 된다. 이현진이 만들어내는 것은 눈속임회화(Tromp L'oeil)처럼 완벽한 정합(整合)을 추구하는 '일원화된 허구'가 아니며, 두개의 리얼리티 사이에는 관객의 의식을 끌어들이는 틈이 있다.

다른 세계의 이면으로 안내하는 입구,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이러한 틀에서 보면 그녀가 최근 선보이고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가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그녀의 작업은 정적인 표현에서 점차 액션을 동반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로 변해간다. 즉 이전처럼 관객을 단순히 어떤 이

작 **바다**, 1998
비디오와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The Sea (recognition of the sea space), 1998
Video and Sound Installation,
(installed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작가 이현진이 유학을 떠나기 전 작품 〈Waterfall II-with new newspapers〉(2000)를 보면 폭포의 영상이 빔프로젝터에 의해 실내에 가득 쌓인 신문지 뭉치들 위에 투사되어, 그것들을 마치 계곡의 바위덩어리처럼 보이게 한다. 피라미드형 구조물에 불의 영상을 투사했던 〈fire〉(1999), 정방형 큐브에 파도의 영상이 투사된 〈the Sea〉(1998) 등 이 시기에 발표되었던 작품들이 주로 그러하다.

하지만 이 작품은 관객들을 마냥 허구의 리얼리티 안으로 몰입시켜 속이려 들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마치 어떤 계곡의 폭포 앞에 선 것 같은 광경이지만, 다시 돌아보면 관객은 신문지 뭉치가 쌓여있는 곳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중(二重)적 세계의 틈에서 우리들의 두뇌는 '인식의 노

공간(異空間)의 입구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혹은 세계와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작품인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관계를 '대응' (corresponding)이라고 이름 붙인 일련의 시리즈로 보여주고 있다.

'corresponding'은 이번 전시(송은갤러리, 7.28~8.13)의 타이틀이기도 하다. 먼저 싱글채널비디오인 〈corresponding I〉을 보면 프레임 안쪽에 작가 본인이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그 액션의 반작용에 의해 프레임이 반대 방향의 운동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흔들리게 된다. 이 장면은 마치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관계를 연상하게 한다. 즉 프레임 안쪽 가상(假想)의 인물과(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상의 설정인) 프레임이 서로 물

우 폭포 I (신문지 더미 계곡), 2000
비디오와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서울 세종문화회관 갤러리에 설치, 2000)
Waterfall II (with 7 tons of newspaper), 2000
Video and Sound Installation, (installed at the Sejong Gallery, Seoul)

좌 Chromaflow
(위아트 프로젝트), 2008
인터랙티브 아트워크,
3 Wiiremote controllers,
computer running Java
Gaurav Gupta, Hyungsun Kim and
Ali Mazalek과 공동작업
Chromaflow (WiiArts Project), 2008
Interactive Artwork (installed at the
Eyedrum, Atlanta, U.S.A.)
Collaborative work with Gaurav
Gupta, Hyungsun Kim and Ali
Mazal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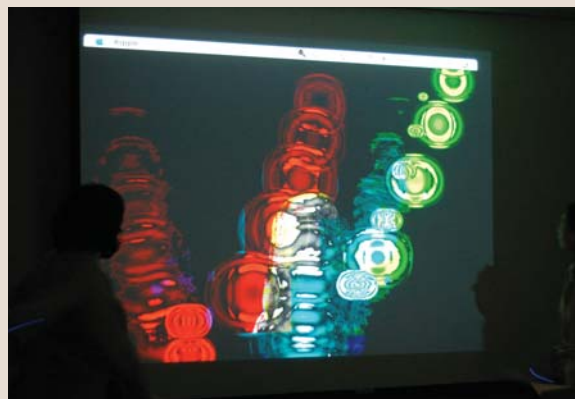
리적인 운동역학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호작용'이다.

나아가 <corresponding> II와 III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관객과 작품, 실제의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의 사이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III에서는 화면 속의 댄서가 관객의 액션에 '대응' 하는데, 이처럼 이현진이 빚어서 만들어내는 세계에는 거의 모든 경우 두개의 구성요소가 '대응=상호작용' 하는 관계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A BeadBall Table> 등의 <Tilting Table> 이나 <The Spinning Screen> 에서도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설정에 의해 전개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의 창발

내하는 입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실재와 가상, 주체와 대상이 서로 얹히고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합성현실, 그것은 '혼돈' 일 수도, '제2의 자연' 일 수도 있다.

가상공간, 사이버공간, 가상현실, 인공생명 등을 출현시킨 기술로서의 미디어는 완전무결한 정합(整合)을 추구하지만, 실재와 반대인 가상세계에서 끝없는 위상의 세계 혹은 환영을 생산해내는 예술가들에 의해 무한히 증식되고 진화한다. 그 세계는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 안의 공간과도 닮은 것이다. 최근에는 수학에서조차 다차원적 위상이나 마음의 내면에 전개되는 공간을 계량(計量)으로 다루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創發)이다. R. 애스콧에 의하면 이와 같은 연결과 상호작용은 몰입(immersion)-변형(transformation)-창발(emergency)로 이어지게 되는데, 비디오설치와 같은 형식, 예를 들면 전술한 <Waterfall>의 경우에서도 그렇지만 가상과 실재 사이에는 중간영역이 발생한다. 공간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사이공간'(inter-space)이라 할 수 있고 인터랙션을 통해 가상현실로서의 요건이 실현된 경우에는 '사이현실'(inter-reality)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in-between'에 해당된다.

이 중간영역에서는 가상도 현실도 아닌, 혹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리얼리티의 체험이 가능하며 '인식의 노동'을 통하여 리얼리티가 재편되고 새로운 의식이 출현한다. 이로써 우리는 또 하나의 이공간(異空間) 혹은 세계의 이면으로 안

다. '우주는 그것을 인지하는 인간의 숫자만큼 존재한다'는 말처럼 그 깊이를 헤아리기는 쉽지않을 듯싶다.

<Moons Over You>는 작가가 모든 관객으로 하여금 각 자신의 달을 가지도록 설정했다. 인간의 내면공간에 펼쳐지는 우주를 상징적으로 외화(外化)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지가 '월인천강'(月印千江)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불교적 통찰과 일맥상통하기에 더욱 흥미롭다. 

글 이원곤 (단국대 디자인대학원 매체예술학과 교수)

※ 이현진 작가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젊은예술가지원사업, NArT 2008 시각예술분야 최종선정자 14인 중 한 명으로, 재단의 지원으로 송은갤러리에서 7월 28일 ~ 8월 13일까지 개인전 'corresponding'을 열고 있다.

우 크로스 빙: 토드
(기울어지는 스크린), 2004
인터랙티브 비디오와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마이크로 콘트롤러,
전기 회로, 컴퓨터
Cross-Being: Todd
(a Tilting Table), 2004
Interactive Video and Sound
Installation, micro-controller,
electronics, computer running
Max/Jitter

YOUNG ARTIST



낭만과 이성의 시대에 산다

연출가 성기웅

연출가 성기웅은 시간 위를 걷는 사람이다. 21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을 누비는 그의 시선으로 우리는 현재를 돌아볼 수 있다. 무거운 역사적 사실보다 낭만적인 인간사에 관심을 가진 그는 20세기 낭만을 무대 위로 불러낸다.

〈과학하는 마음2 - 북방한계선의 원숭이〉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이 모두 동물원 견학을 떠난 날이었다. 한낮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후끈한 바람이 부는 7월 어느 날 저녁, 연출가 성기웅을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흡연구역의 좁은 탁자에서 성기웅은 김윤식 편저의 이상문학전집을 읽고 있었다. 올 가을 올릴 연극 〈깃븐우리절믄날〉을 위한 공부다. 그 동안 그가 보여준 작품들, 〈삼등병〉, 〈과학하는 마음1-진화하는 오후〉, 〈과학하는 마음3-발칸동물원〉, 〈조선형사 홍윤식〉, 〈소설가 구보씨와 경성사람들〉을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과 근대, 일상의 틈새.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성기웅을 들여다보는 키워드이다.

히라타 오리자를 만나다

국문학도였던 성기웅은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1년간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공연을 보았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막 보았던 연극이 히라타 오리자 연출의 〈서울시민 1919〉였다. 90년대 중반, 주로 다소 형식적이고 강렬한 가부키 전통이 남아 있는 일본 연극을 보았던 성기웅에게 히라타 오리자의 연극은 신선했다. 그가 보여준 조용한 연극의 세계는 일본 연극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고 연극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는 그가 만든 극단이다. 이 극단의 창단공연으로 〈과학하는 마음〉을 집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직접 쓰고 연출한 〈삼등병〉이 프린지 페스티





벌에서 공연되기도 했었고, 카라 줌로 원작의 <알리바바의 밤>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과학하는 마음>은 모두 3부작 시리즈다. 어느 생명과학연구소의 휴게실이라는 공간을 무대로 하고 있다. 제목이 주는 선입견과는 달리 거대담론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은 전혀 없다. 그저 오가는 연구원들, 잡담같은 연구 진행 과정, 무심히 던지는 말 한 마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서로의 반응이 전부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이 연극이 추구하는 바를 읽을 수 있다.

전작들도 그러했지만 이번 공연에는 모두 열일곱 명의 배우가 출연한다. 대극장도 아닌 소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무대 전환 없이 이야기를 끌고간다는 것만으로도 무모하리만큼 새롭다. 딱히 주인공이 없는 비슷한 비중의 인물들, 동시다발적으로 오가는 대화, 침묵과 수다의 경계가 무너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장면의 리듬을 쫓아가게 된다. 많은 과학용어들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몇 마디 짧은 대화 속에 그려진 이들의 일상이다. 배우들은 다른 캐릭터와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성기웅이 3부작 시리즈 <과학하는 마음>을 통해 시도하는 것이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과 주인공이 끌고 가는 단선적인 이야기를 거부하는 연극,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보다는 어떤 관계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연극이다.

근대로 떠나는 블랙홀

최근 몇 년 사이 근대를 다룬 소설, 영화,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8, 90년대에 다루지 않았던 시대에 대한 호기심도 있을 테지만, 이들 모두 근대의 묘한 복잡성에 매료되어 있다. 연극에서 근대를 화두로 끈질기게 작업하는 이가 있다면 성기웅이 그렇다. 그의 창작품들은 거의 모두 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유행에 편승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근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인물들, 생활상, 일상적 묘사에 끊임없이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의 연극에서 근대를 다루는 탐구 정신이 느껴진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조선형사 홍윤식>, <소설가 구보씨와 경성 사람들> 그리고 하반기에 막이 오를 <깃븐우리절문날>까지 같은 시대, 비슷한 배경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을까 싶지만 성기웅은 이제야 하고 싶은 이야기의 언저리에 닿았고, 앞으로도 그 시대를 더 깊이 조망하고 싶단다. 그는 근대를 통해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 동시대의 언어와 사회상을 공유하는 연극이라는 장르에서 그가 근대라는 특정 시대에 발이 묶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근대는 낭만의 시대였다. 혼재, 혼동의 시대이자 자유연애가 성행하고



2007문화진흥기금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선정작

과학하는 마음

1

진화하는 오후 편

히라타 오리자 작 | 성기웅 번역·연출

2007. 11. 29 - 2007. 12. 16
 평일 8:00 | 4:00, 7:30 | 10:00 | 월 휴
 연주소극장

김문석 | 김보영 | 이지현 | 이희룡 | 박윤석 | 이갑선 | 권민영 | 신영현 | 윤석용 | 윤미영 | 정유미 | 허두영 | 김진성 | 서미영 | 홍지현 | 김하리

제작: 제2연극스튜디오 후원: 한국문화재단 후원: 동네연극기

문의: 02-744-7304 | www.tobecompany.co.kr 배대: 인터파크 1544-1555 | ticket.interpark.com



카페 문화가 있었다. 최근의 작품들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근대보다는 그 시대 룸펜들의 문화와 유행을 좇아가고 있다. '경성'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속에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심지어 지금 서울의 젊은이들은 당시 경성의 젊은이들과 닮아 있기까지 하다. 우리는 지극히 일본의 방식으로 역사를 배우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미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고유의 전통이 지금의 문화와 맞닿아 있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성기웅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1920, 30년대에 안착하게 된다. 그는 무대 위로 박태원과 이상을 불러내고, 근대의 여인들에게 과감하게 분장을 시켰다. 현대와 근대의 공간은 서로 아득하지만 그를 통해 하나의 상으로 겹쳐진다.

인터뷰 내내 가만히 그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청년 같기도 하고, 시대를 고민하는 근대 풍경 속 룸펜 같기도 하다. <과학하는 마음3> 이후 발표될 <70분간의 연애3>와 <깃분우리절믄날>을 통해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지 자못 기대 된다. 근대의 낭만적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지, 홍대클럽과 대학로 거리를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그려낼지 그의 펜이 닿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것도 즐거운 산책이 될 것 같다.

예술가들은 늘 다른 방식에 목말라한다. 그것은 새로움이고, 보지 못한 시공간이며, 저 너머의 세계이다. 낯선 길을 찾아가는 두려움에서부터 창작이 시작된다면, 연출가 성기웅은 어디쯤에서 있는 걸까. 근대



에서 헤매고 있을까, 아니면 근대를 떠나 미래 어디쯤의 동네를 들여다보고 있을까. 어디에서건 그는 무대 위로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다. 지루하기 짝이 없어도 오래도록 그들이 웃고 움직이고 이야기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막이 내리더라도 사람들의 퇴장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쁘지만 느긋하게, 여럿일수록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성기웅의 방식이다. [▶](#)

글 김민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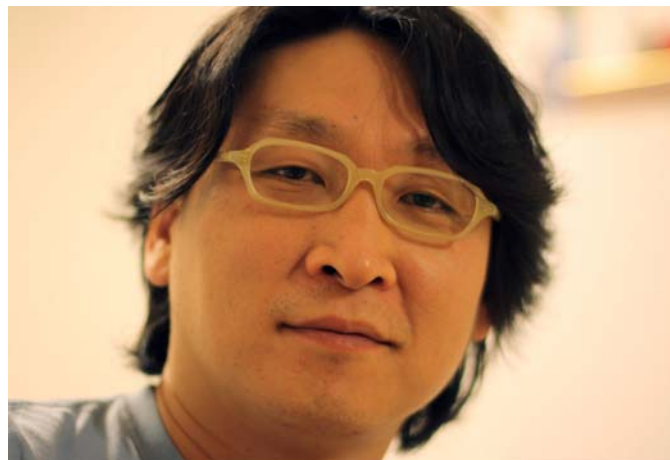
※ <과학하는 마음2 - 북방한계선의 원숭이>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으로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대학로 선돌극장 무대에 오른다.

기계와 인간의 시선이 교차할 때

최병일의 시각 기계

본다는 것은, 보면서 보여 지는 것이다. 인간은 기계를 통해 영상을 보고, 그 순간 우리도 기계의 시선에 의해 대상화된다. 광학적 미디어에 의해 도해되고 재편되는 드넓은 외계. 최병일, 그가 만든 비디오 옵스쿠라를 통해 지금 예기치 않은 만남, 낮선 조우가 시작된다.

최병일은 의미와 기억의 체계에 관한 다이어그램으로 기능하는 시각 기계를 만드는 디자이너다. 그는 서울대학교와 크랜브룩에서 시각·영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웹디자인 회사 FID에서 아트디렉터로 일했으며,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시각 디자이너라면 응당 책이나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는 오늘도 카메라 옵스쿠라의 후손인 비디오 옵스쿠라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이제 그의 문제의식은 통상적인 디자인 범주를 넘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다층적 시각성과 주체의 문제를 탐구하는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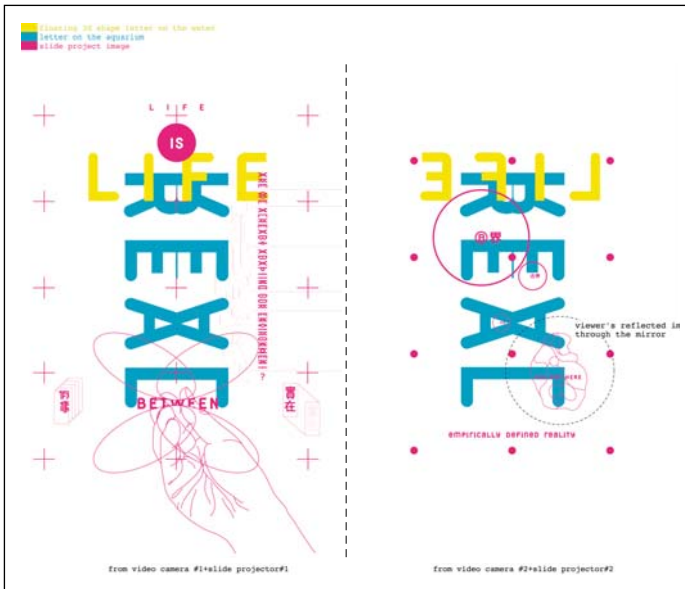
포스터-기계: <라이프 이즈 리얼...>

최병일의 작업 세계는 2001년 작 <라이프 이즈 리얼 위터 포스터>를 통해 남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라이프 이즈 리얼...>은 꽤 복잡한 설치 작업이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포스터 이미지를 출력하는 '포스터-기계'다. 이 기계 장치는 동시대 디자인의 문법을 도해하는 동시에 무한히 변주되는 포스터를 도출한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포스터는 일종의 실험 공간으로 간주된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약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클라이언트의 홍보를 대행하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기

보다는, 자신의 디자인 문법을 개발하기 위해 포스터를 반복적으로 디자인하고 발표해왔다. 디자이너 사회 또한, 그렇게 발표되는 수많은 포스터를 통해 서로의 디자인 문법과 스타일링을 평가하고 공유해왔다.

최병일의 경우, 1990년대 크랜브룩 아카데미의 해체주의 문법으로 디자인된 포스터들에 대한 메타비평의 차원에서 새로운 포스터를 디자인하다가 이 기계 장치를 고안하는 데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작업은 기호학을 비롯한 포스트모던 담론의 유행과 매킨토시 컴퓨터가 구현해낸 데스크톱 편집방식의



〈라이프 이즈 리얼...〉의 스크린 도해, 2001

영향 속에서 태어난 1990년대 특유의 그래픽 디자인 문법에 연원한다. 이 '자동 디자인 장치'는 다중의 레이어를 통해 구사되는 해체의 문법을 최선의 형태로 구현하는 동시에 그 역사적의미를 비평적으로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광학적 원근법 기계: 〈비인유어포지션〉

2003년 최병일은 첫 개인전 〈인팩티드〉(대안공간풀, 2003년 8월 21일 ~ 9월 2일)을 열었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이 전시는, 여타 타이포그래피 작업들을 함께 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점의 신작 〈비인유어포지션〉을 발표하는 공간에 다름 아니었다. 전시장을 하나의 커다란 카메라 옵스큐라로 설정한 채 광학적 원근법의 상징성을 탐구한 이 설치 작업은 전작 〈라이프 이즈 리얼...〉을 잇는 포스트-휴먼 담시로서 정교한 다중 시선의 게임을 펼쳐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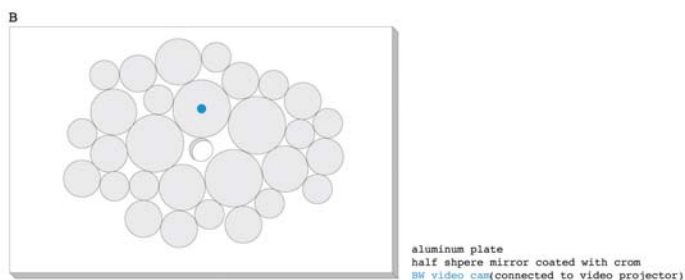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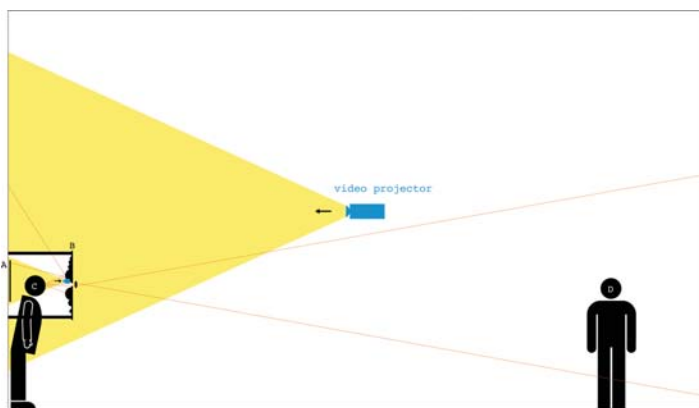
미술사가 에르빈 파노프스키는 원근법이 상징을 담아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주요한 상징임을 설명하기 위해, “퍼스펙티브는 ‘통해 보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다”라는 알브레히트 뒤러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은 단지 시점에 따른 대상의 왜곡을 잡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시각적 공간을 평면의 형태로 변환해내는 창문의 의미를 지녔기 때



〈라이프 이즈 리얼 워터 포스터(life is real_water poster)〉, 2001

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파노프스키를 통해 르네상스 이래의 서양화에서 원근법은 그 자체로 그림의 주제이자 내용이라는 사실을, 즉 ‘원근법은 하나의 힘센 상징임’을 이해하게 됐다. 허나 그런 우리도 최근의 테크놀로지 환경의 변화가 원근법이라는 상징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비인유어포지션〉은 그러한 최근의 변화를 추적하는 비디오 옵스큐라다. 핀홀 카메라와 폐쇄회로, 영상 프로젝터에 의해 구현되는 이 새로운 광학 장치는, 관람객을 주체 없는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도록 만들고 훑쳐보는 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끝없는 이미지 순환의 전자적 광학 회로를 구성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에 성공한 이는, ‘이미지 회로의 대상인 자신이 가장 많은 이미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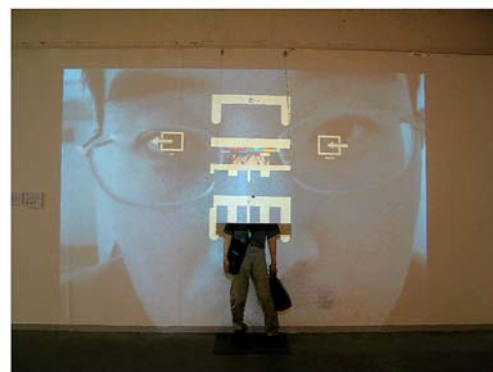


〈비 인 유어 포지션(be in your position)〉의 기계 장치 도해, 2003

아이러니 때문에 멜랑콜리한 감상에 빠진다. 이를 ‘모노(物) 없는 모노노아와레(もののあはれ)’의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테크놀로지 담시엔 화자가 없고 담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회로 그 자체이니 이를 ‘모노에 의한, 모노 없는 모노가타리(物語)-기계’라고 불러도 좋겠다. (모노가타리는 ‘모노노아와레’를 추구하는 소설이고 ‘모노노아와레’는 ‘모노’, 즉 인식의 대상이 관찰자의 정신에 와 닿을 때 발생하는 마음의 움직임일 것이다.)

전개: 확장된 환영의 거울-기계: 〈V-디바이스 프로젝트〉

2005년에 전개된 〈V-디바이스 프로젝트〉에서 최병일은 실재의 공간에서 새로운 시각 경험의 차원을 창출해내는 아나



〈비 인 유어 포지션(be in your position)〉, 2003

모포시스의 거울-기계를 고안, 엔지니어인 배춘경의 지원을 받으며 두 가지 워킹모델을 제작했다. (아나모포시스란, 왜상을 특수 제작한 거울로 바로 보는 일 또는 거울을 통해야 비로소 바로 보는 왜상을 뜻한다.) 그 가운데 더 복잡한 거울 로봇인 〈시각장치01〉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가로 77cm, 세로 200cm 가량의 지지대에 반경 11.5cm 크기의 정육각형 거울 24장이 다섯줄에 걸쳐 벌집형태로 정렬·부착되었다. 각 거울들은 컴퓨터가 제어하는 서보모터에 의해 움직이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24장의 거울들은 앞에 선 이에게 각기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

두 번째 개인전 〈시각 장치〉(김진혜 갤러리, 2005년 8월 29일~9월 5일)에서 최병일은 이 기계를 이용해, 이미지의 과편으로 장식된 방에서 하나의 온전한 영상을 뽑아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오로지 한 시점-즉 한 개의 편회에서만 감상이 가능한 것이므로, 작품이 설치된 공간에 들어온 이들은 모두 이 기계가 포착해내는 환영의 일부가 될 따름이었다.

이 기계는 ‘공간의 재현 방식’을 재해석하고 ‘공간속에 선

우리 자신'을 낮설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거울-기계를 통해 이뤄지는 아나모픽 브리콜라주의 진짜 주인공은 기계의 움직임 을 관찰하는 움직임과 시간이다. 고로, 함께 제작된 또 다른 거울-기계인 <시각 장치 02>가 아나모픽 이미지로 작동되는 전자시계였던 점은 우연이 아니다.

<시각 장치 02>는 정육각형의 거울 세 장으로 구성된 로봇으로, 숫자로 가득한 방에 암전히 앉아 관객을 기다렸다. 누군가 핀홀에 눈을 대는 순간, 이 기계 무회는 시간의 춤을 취한 채 시각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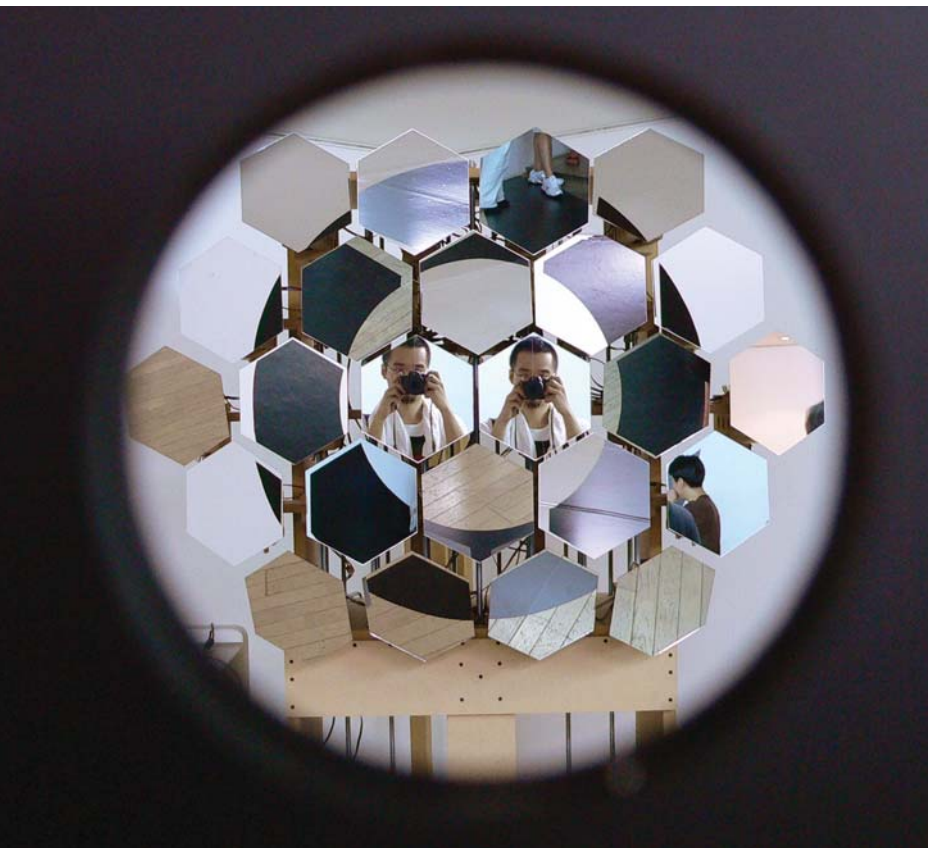
중간 종합: <입력과정>

올해 열린 세 번째 개인전 <입력과정>(갤러리 팩토리, 2008년 6월 27일 ~ 7월 20일)에서 최병일은, 전시장을 암실로 꾸몄다. 유리로 된 갤러리의 입면에 검정색 시트지를 부착해 일광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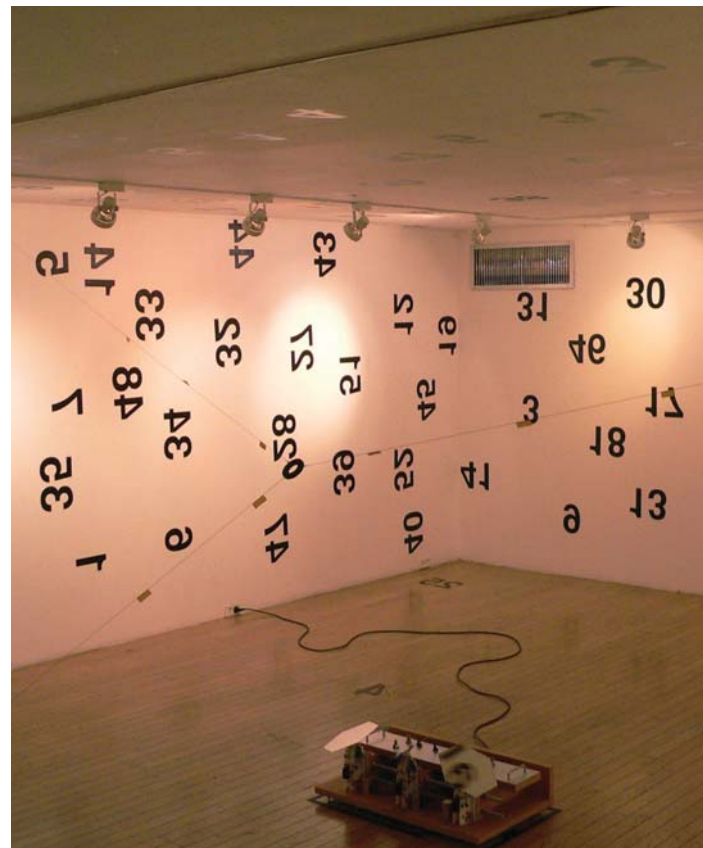
바로 그 앞에 <과정 A를 위한 장치>가 서있다. 이 장치는 갤러리 내부로 외부의 풍경을 끌어들이는 카메라 옵스큐라의 일종으로, 바로 뒤에 부착된 정방형의 간유리 패널 위로 아래위가 뒤집힌 영상을 맺는다. 그런데 최병일의 영상엔 뒤집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길 건너편 남의 집 쪽문 위에 거꾸로 설치해놓은 전자시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과정 A를 위한 장치>는 관람객에게 시계를 바로 보여주는 것따위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는다. 이는 카메라 옵스큐라의 입장에서 갤러리의 외부와 내부를 하나로 매개하고 그를 통해 탈-인간적인 시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종의 다이어그램 기계다. 고로 이 작업은 전작인 <라이프 이즈 리얼...>의 방식에 연루된다. <라이프 이즈 리얼...>이 포스터의 구성 원리를 레이어 기계의 시선으로 도해했다면, <과정 A를 위한 장치>는 갤러리 공간의 구성 원리를 카메라 옵스큐라의 시선으로 도해했다.

<시각 장치 01(visual device 01)>,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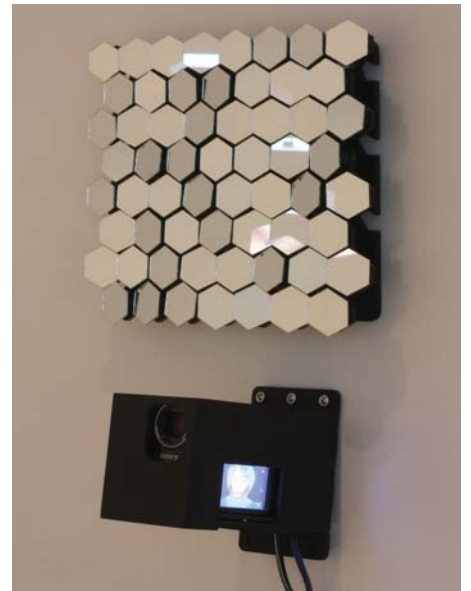


<시각 장치 02(visual device 02)>, 2005





〈과정 A를 위한 장치(device for process A)〉, 2008



〈과정 B를 위한 장치(device for process B)〉, 2008

반면 〈과정 B를 위한 장치〉는 좀 더 복잡한 논리를 갖췄다. 관람자는 60개의 정육각형 거울로 구성된 벌집 모양의 소형 반사경과 카메라 앞에 서도록 유도됐다. 한 쪽 눈을 감은 채 장치가 제공하는 특정 시점을 찾다 보면, 파편적인 영상을 보여 주던 60개의 거울이 하나의 완결된 영상을 제공한다. 바로 거울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다. 원리는 이렇다.

카메라가 관람자의 얼굴을 잡으면, 그 영상 정보는 컴퓨터에 의해 60개의 정육각형 조각으로 나뉘고, 두 대의 프로젝터를 통해 벽면에 분산 투사된다. (거울을 보는 사람의 뒤쪽 벽면에 영상이 맺히므로 처음엔 원리를 깨닫기 어렵다.) 벌집 모양의 반사경은 그렇게 분산된 영상을 다시 하나로 모아, 관람객에게 아나모프시스의 작은 경이를 제공한다.

영민한 독자라면 눈치 챌겠지만, 〈과정 B를 위한 장치〉는 〈비인유어포지션〉과 〈시각장치01〉을 종합하는 장치다. 즉, 관람객을 주체 없는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도록 만드는 비디오 옵스쿠라인 동시에, 아나모픽 브리콜라주를 통해 공간을 재해석하는 거울-기계다. 대신 이번엔 서보모터로 기동되는 정교한 로봇을 구현하는 대신, 움직임이 없는 작은 거울 패널을 만들었다. 과시적인 면모를 줄여 운신의 폭을 넓히고, 초기의 문제의식을 소환한 결과는 적어 긍정적이다.

〈과정 B를 위한 장치〉를 비롯한 최병일의 주요 작업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계가 출력하는 영상을 고찰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그 시점이란, 관람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상화된 기계의 시점 그 자체를 뜻한다. 지극히 탈인간적인 작업이지만 보는 이가 보는 자신을 보며 기계의 시선을 감지할 때, 다시 한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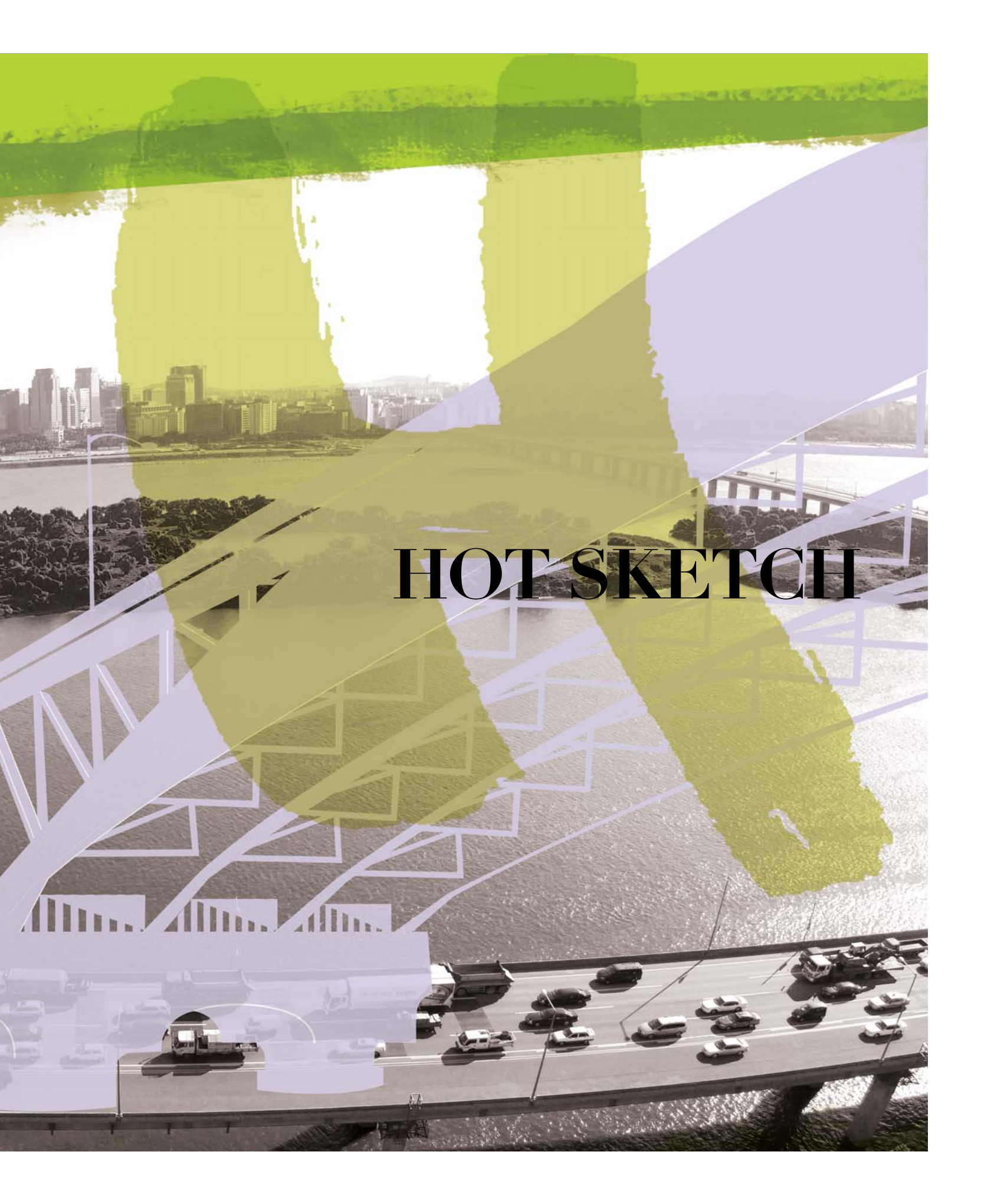
화가 이우환은 ‘시각에 대해’라는 제목의 단문에서 이렇게 적은 바 있다: “신체는 내게 소속되어 있음과 동시에 외계하고도 이어져있는 양의적인 매개항이다. 그러니까 신체를 통해 본다는 것은 보면서 동시에 보여지는 것이며 보임과 동시에 보는 것이 된다.” 최병일의 작업에 적용해보자면 기계는 우리의 신체를 통해 보이기를 희망하고, 보임을 통해 우리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인간이 기계를 통해 영상을 볼 뿐만 아니라, 기계도 이상화된 시점에 도달하려 애쓰는 관람객을 쏘아보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기계의 시선은 지하철 자동 사진기 부스에서 우리를 긴장시키는 미지의 그것과 같은 종류다.)

그리고 보니, 〈과정 A를 위한 장치〉(가 출력하는 풍경의 이미지는 ‘광학적 미디어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의 드넓은 외계’를 유비적으로 지시했던 듯하다. 

글 임근준(이정우) (미술·디자인 평론가)







HOT SKETCH

HOT SKETCH

베이징 올림픽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기틀삼아 문화 강국이 되고자 한다. 해외 초청작들로 꾸며진 베이징올림픽 문화축전이 그러하다. 한국도 다양한 공연으로 축전에 참가했다. 이번 축전을 계기로 한·중 양국 간의 긴밀한 문화 교류가 실현되길 바란다.

문화를 향한 용(龍)의 꿈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One World One Dream)’을 소망하는 베이징올림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안개에 쌓여있던 장이머우 감독의 개막식전 비밀이 하나 둘씩 새어나오며 지구촌의 호기심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56개 민족, 13억 인구가 선호하는 숫자8로 온통 수놓을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 8초가 아직 저만치 남았는데도 말이다.

사실 올림픽의 긴 행진은 이미 시작됐다. 문화축전으로 문을 열고 닫는 올림픽의 오랜 전통은 이번에도 본행사인 스포츠게임을 앞질렀다. 지난 6월 23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카를로스 파푸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대회당에서 개막을 선언한 ‘2008 올림픽문화활동(Meet in Beijing, 相約北京)’은 전 세계 37개국 600여 예술가들이 약 3개월 동안 펼쳐게 될 공연예술의 대향연이다.

중국문화부, 베이징 시 인민정부, 올림픽조직위원회, 국가광고영화텔레비전총국이 주최하는 이 초대형 문화행사는 5대륙의 화려한 갈라 이브닝



베이징 왕푸징에 위치한 실험극장으로 유명한 동방선봉극장 무대

중국에 한국의 공연예술을 쏘아 올리다!

2008 베이징올림픽문화축전의 한국공연예술



〈레이디 맥베스〉 토론회, 중국 평론가의 질문에 대답하는 한태숙 연출



〈레이디 맥베스〉 토론회, 왼쪽부터 왕사오잉(국가극원 부원장), 딩루루(중앙극학원 연출과 학과장), 리지더(연극평론가, 중국극 부주편), 정동현(궁중의사역), 서주희(레이디 맥베스역), 박호빈(움직임시종역), 이영란(오브제시종역), 원일(음악시종역), 권겸민(어린이시종역), 한태숙(레이디 맥베스 연출), 오수경(한양대학교 교수)

시리즈로 팡파르를 울리는 중이다. 그 외에도 춤, 팝과 고전 심포니오케스트라, 노래, 뮤지컬, 오페라, 중국전통 곤극과 현대화극, 그리스비극, 뮤직콘서트, 합창, 비언어극, 전통 음악 그리고 춤으로부터 현대극에 이르는 한국공연 메들리 등 총 50종이 넘는 월드클래스 작품들로 구성되어 가히 매머드급이다. 아일랜드의 춤과 음악, 노래 전통을 관능과 활기, 세련된 스펙터클로 버무린 **리버덴스**, '21세기의 푸치니'라 불리는 탄둔이 물, 불, 흙, 나무를 영감으로 만든 3막의 국제합작오페라 **차(茶)**, 한·중 합작 비언어극 **젠(Zen)**, 조수미, 르네 플레밍을 비롯한 세계적 성악가들이 마련한

글로벌 하모니콘서트 등 역대 최대를 자랑하는 문화축전은 풍성해 보인다. 4000억 원을 들여 6년간 공사한 국가대극원을 비롯해 인민대회당, 세기극장, 공왕부(恭王府) 등 베이징 시내의 주요 공간들은 위의 공연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처럼 문화행사에 총력을 기하는 이면에는 스포츠를 넘어 21세기 문화 시대에 슈퍼 파워를 갖고자 하는 용(龍)의 꿈이 실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시대착오적 관행이 공존하는 과도기 문명을 드러내기도 한다. 공연시작 전 중국어와 함께 영어로 모바일폰, 사진촬영금지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는 등 극장문화는 작은 변신을 추구하면서 역설적이

게도 '사전검열' (한국공연들에마저도 예외가 없었던)을 했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의 문턱에 들어선지 수년이 지났고,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이 땅의 올림픽문화축전이 과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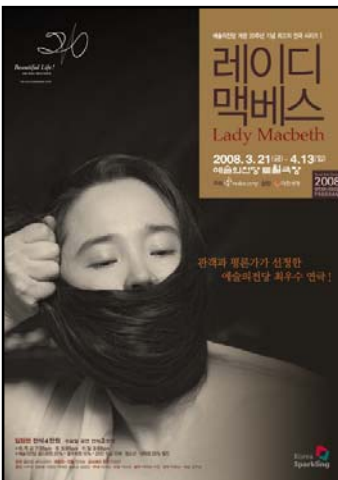
집중! 한국현대연극-三人三色

한·중 양국의 문화부가 발 벗고 나선 '2008 Meet in Beijing - 한국공연예술주간' (6.18~7.13)은 전체 문화축전 행사에서 예외적으로 '특혜'를 누린 한국만의 종합예술잔치였다. 국립국악원의 **전통음악과춤**(국가대극원 음악원, 6.18), 국립오페라단의 **천생연분**(세기극원, 6.28~29), 서울예술단의 **왕의 우인, 공길**(세기극원, 7.5~6)을 먼저 선보인 한국은 동시대적 삶을 연극이라는 거울로 보여주는 '집중! 한국현대연극-三人三色'(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무리하며 짜임새 있는 공연행사를 마련하였다.

특히 오늘의 한국연극을 대표하는 3편의 작품 - **청춘예찬**(극단 골목길, 7.2~4, 조양구문화관9개극장), **보이책**(사다리움직임연구소, 7.9~11, 조양구문화관9개극장), **레이디 맥베스**(극단 물리, 7.11~13, 동방선봉극장)은 지난 10여년 평단과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농익은 동시대의 트리오 수작들이다. 작품선정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을 예견하며 공감대를 확보한 예외적 케이스이기도 하다.

폭넓게 사실주의를 수렴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시선으로 삶의 누추하고도 폭력적인 일상과 그 관계들을 포용해내는 박근형의 언어극, 공간에 대한 건축적 탐구로 몸의 표현을 시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임도완의 신체극,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죄의식의 내면풍경을 파헤치며 서구정전에 도전한 한태숙의 재창작 물체극은 그야말로 절묘한 '三人三色'을 이룬다.

앞서 소개한 'Meet in Beijing'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각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춤, 노래,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림픽의 대중적이고도 외교적인 측면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구상인 것이다. 따라서 곤극 **떠도는 꿈**(Floating Dreams)과 홍콩화극단의 현대극 **데린공주와 시희황태후**(Princess Delin and Queen Mother Cixi) 각 1편으로 호스트의 연극명맥을 유지하는 것 외에, 그리스비극 2편(2004년 아테네올림픽 개막식연출자인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노우가 새로 제작, 시각적 힘, 침묵과 양식적 동작의 놀라운 결합으로 관객을 유혹하는 **메디아**와 그리스국립극장의 **프로메테우스 바운드**)이 고작인 연극공연은 다른 장르들에게 일단 숫자적으로 밀린다.



〈레이디 맥베스〉 포스터



한국현대연극 삼인삼색(三人三色) 포스터 이미지



〈레이디 맥베스〉 공연사진

이러한 연극부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에 한국의 ‘집중! 한국현대연극 - 三人 三色’은 시의 적절한 기획이었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연극프로그램에 갈증을 느끼던 연극인, 관객들은 연일 객석을 가득 채우며 한국현대극에 비상한 관심을 표했다. 특히 국내행사에서조차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다는 중국연극계의 대표적 인물들이 매 공연모습을 드러내는 등 이 순간만큼은 연극 ‘한류’를 방불케 했다.

게다가 세 작품에 각기 중국학자·평론가·현장예술가들과 한국의 평론가, 연출가, 배우들이 함께하는 토론회(post-performance discussion)를 마련하여 공연을 생산적 담론의 장으로 심화했다. 요약하자면 그간 베세토연극제를 통해 소개됐던 한국연극이 대체로 전통의 현대적 활용 그 전범들이었다면, 다양한 미학적 실험의 베스트 컬렉션으로



〈보이책〉 공연사진

빛난 금번의 시도는 동시대 한국연극의 또다른 충위와 그 속에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케 했다.

국적을 뛰어넘은 교감의 장

청춘예찬과 보이책이 오른 조양구문화관9개극장은 사회주의 문화의 전형적 유산으로 남겨진 베이징 시 변방의 오랜 극장이었다. 따라서 400석 중극장 규모의 프로시니엄 무대는 조건과 시설 면에서 우리 공연들에 유리하지 않았다. 특히 바닥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평면배열로 가시성을 침해 받는 가운데 무대를 쳐다봐야 하는 객석구조는 중국 전통극 공연과 달리 공간과의 민감한 작용을 염두에 둔 우리 현대극들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한 편으로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런 극장환경에 익숙한 중국관객들 덕분에인지 무대는 성공적이었고, 연극의 힘은 공간의 장벽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였다.

7월 2일 그 막을 올린 청춘예찬은 본래 타자의 시선을

배려하지 않은 극작이요, 낮은 삶을 가장 연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한국적 정서로 던지고 풀어내는 공연이다. 따라서 외국관객과의 소통은 자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정부분 국제공연의 한계를 인지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도 매우 감동적”이요, “사회를 향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힘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객석의 반응은 뜨거웠다. 더불어 “중국관객들에게 낯선, 폭력과 폭설의 자극적인 연출기법”이었으나 “사회적 갈등의 배경에 개인의 갈등을 중첩시킴으로서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작품”이라는 중국평론가들의 코멘트는 ‘三人三色’의 첫걸음에 자신감을 실어주었다.

청춘예찬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다리움직임연구소의 **보이책**은 중국 연극인들에게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들은 뽀히너의 **보이책**을 80년대 인민예술원에서 독일연출가가 올린 것과 90년대에 들어 중앙극원에서 올린(명징후이 연출) 두 편의 전통적 접근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관객들에게는 공간의 건축적 활용에 근거하여 의자

와 신체움직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축소시키는 대신 몸과 공간의 역동성을 확대한 시도가 다소 낯설어 보였을 것이다. 마치 이 공연이 무대에 처음 올랐을 즈음 우리객석에서도 그랬듯, 사실주의의 정형화된 틀에 익숙한 중국관객들에게는 앞선 공연문법이었던 것이다.

반면 “시각적으로 풍부한 이미지를 선사하고 상상력을 자극하여 놀라운 기쁨을 선사했으며, 의자와 연기의 결합으로써 새로운 언어가 생성된 점”을 반갑게 여기는 반응으로 미뤄본 공연의 성과는 적지 않았다.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오태석, 이운택의 작품을 기억하는 평론가 리지더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을 지닌 현대적 연출가의 관념세계가 잘 드러난, 이동 혹은 운동의 의미가 많이 들어간 작품”으로 평가하면서, “11개의 의자만으로 풍성한 이야기를 제공한 사다리움직임연구소를 ‘의자움직임연구소’로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레이디 맥베스**는 앞선 두 공연과 달리, 기 선정된 공간에 대한 연출의 거부로 막판에 결정된 동방선봉극장

무대에 올랐다. 무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계단형 객석구조로 다행히 이 작품의 근본 미학에 조용하는 환경이었다. 1998년 초 연 시 음악과 안무를 맡았던 원일과 박호빈의 컴백으로 **레이디 맥베스**는 본연의 에너지를 회복했다. 3년 전 **서안화차**의 농밀한 관객체험으로 한태숙을 기억하는 중국 연극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킨 공연이었다. “**맥베스**의 핵심내용을 충실히, 풍부하게 표현했으며 의상, 오브제, 음악, 회화, 언어를 사용해 매우 강렬하고도 새로운 창조를 보여줬다”는 중국국가극원 1급 연출가 우사오장의 논평과 “정통극을 추월

〈청춘예찬〉 공연사진





〈청춘예찬〉 토론회, 왼쪽부터 정씨앤(중앙희극학원 희극문학과 주임), 덩루루(중앙희극학원 연출과 학과장), 우샤오장(국가희극원 1급 연출), 김주완(청년역), 고수희(여자역), 천정하(엄마역), 윤제문(아버지역), 안치운(연극평론가, 호서대학교 교수), 박근형(청춘예찬 연출)

하는 독특한 신체연기와 음악, 미술, 조각의 결합으로 완성된 작품”이라는 관객의 반응이 전하는 공연의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린다.

한국현대극의 내일을 내다보며

2007년 현대극 100주년을 맞았던 중국과 한 살 차이로 금년에 센테니얼을 축하하고 있는 한국연극이 올림픽문화축전으로 뜨겁게 만났다. 현대연극사 초기의 유사한 기억들을 공유함에도 정치·사회적 격랑에 시달린 양국의 문화교류는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베세토연극제, 아시아연극연출가워크숍, 학술세미나 등을 통한 근간

의 노력들로 교류에 힘이 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올림픽문화축전을 계기로 양국 문화부가 발 벗고 나선 ‘한국 공연예술주간’ 행사는 공연예술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공적 브리지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했다. 특히 ‘집중! 한국현대연극 - 三人三色’으로 촉발시킨 우리현대극에 대한 관심은 한·중 문화교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선정이나 예산지원문제 등 수행상의 디테일 보완과 지속적이고도 전문적인 교류 전략을 향후 과제로 남기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열정이 담긴 보람된 행사였다. 

글 허순재(연극평론가, 서울예술대 연기과 교수)



음악으로 나누는 우정이 순수 예술의 한류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북경올림픽기념 중국초청공연 review



상해공연무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가 처음 중국 공연에 나섰다. SSF는 7월 3일, 4일 중국 북경대극원과 상해 오리엔탈아트센터에서 이틀간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날로 발전하는 중국의 공연 문화와 중국인의 높은 문화 향수 욕구를 실감하는 계기이자, 순수예술 영역에서 또 한번의 한류를 예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상해공연 포스터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이하SSF)가 지난 7월 3, 4일 최초로 해외 나들이를 했다. 첫나들이의 대상지는 중국 북경과 상해이다.

이번 SSF 중국공연은 북경 국가대극원과 상해 오리엔탈아트센터 두 곳의 초청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 두 공연장에서는 2008년 북경올림픽을 맞아 세계 유수 문화예술단체들을 초청하여 올림픽 문화축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을 기념하여 북경에 초대받은 한국 공연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 오페라, 현대연극이 많다. 그 틈에서 SSF는 순수 음악 축제 분야에서는 최초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행사에 초청된 경우다. 북경 공연은 SSF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눈여겨보고 있던 국가대극원의 직접 제안으로 이뤄졌다. 상해 공연의 경우는 상해 오리엔탈 아트센터 예술위원회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2008년 SSF에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참가한 슈종이 예술위원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번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의 비전은 '음악을 통한 세계인과의 우정'이다. 88년 올림픽을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서울이 2008년 북경에서 열릴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간의 우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서울과 북경 양도시의 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문화예술을 연결고리로 한 우정이 싹틀 수 있는 자리였다.

운영의 미숙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최고

7월 3일 북경수도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은 공연장인 북경 국가대극원으로 향하였다. 국가대극원은 한국에서 생각하던 공연장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커다란 돔 하나에 3개의 극장이 위치한 건축학적 아이디어와 규모에 놀라, 과연 중국의 대국적인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이곳의 안내에 따르면 국가대극원은 완공된 이후 자금성, 만리장성, 798예술구와 더불어 북경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강동석 <바이올리니스트,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중국공연 예술감독>



상해공연무대

필자는 6년 전 중국 제남시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공연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그 당시 제남시의 극장을 생각하면 북경국가대극원은 그야말로 최신식 극장이다. 공연장비 하나 제대로 없어 한국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짊어지고 갔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발전 속도는 가히 놀랄만하다.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현재 3개의 극장이 개관했고 2개의 극장을 건설 중이라고 한다.) 88 서울올림픽이 갑자기 떠올랐다. 경기장 공사 소음과 도로 경관 공사, 올림픽공원을 지날 때의 보안검문 등을 떠올려 보면 지금 북경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북경 국가대극원은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드라마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SSF 공연이 열리는 곳은 콘서트홀이었다. 콘서트홀은 지난해 개관한 이후 키리 테 카나와, 랑랑, 런던 필, 호세 카레라스, 안네 소피 무터, 킹스 싱어즈, 로테르남 필 등의 세계적 아티스트들의 초청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직 100% 완공되지 않아서인지 시설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안내소, 티켓박스 등은 어수선했으며 안내표시 및 관람객 대기 편의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들이 다소 불편을 겪었다. 가장 큰 아쉬움은 관계자에게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림픽과 관련하여 북경 국가대극원측의 보안 관련 정책 강화로 연주 상황과 내부 촬영이 전면 금지되어 가지고 있던 카메라도 보관소에 맡길 수 없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무대 운영에 있었다. 극장 스태프들의 업무숙련 미숙으로 진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준비물품 부족, 스태프들의 불성실함, 안내체계 미숙 등은 훌륭한 하드웨어(공연장)에 비해 소프트웨어(운영 시스템)가 부족한 중국 공연문화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하드웨어의 부실에 비해, 자리를 채운 관람객의 수준은 훌륭했다. 북



경 공연의 경우 일반 판매용 좌석 총계 1,800석 기준으로 유료 관객 1,500석과 1,600석(7월 3-4일, 공연장 집계)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중국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중국 최고의 도시이지만 아직 올바른 공연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라 모든 곡의 악장 사이에 박수가 나오고 간혹 연주 중에도 좋은 자리를 찾아 좌석을 이동하는 이들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북경 관객들은 최고의 집중력과 열렬한 환호로 자국을 찾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환대했다. 특히 XU Zhong 슈중(중국), Yuan Sheng 유안 쉑(중국)이 연주할 때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등 자국 음악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어린 학생들과 가족단위의 관객들도 많이 보여 중국인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순수예술의 한류 가능성 보여

이번 SSF 공연은 예술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이외에도 첼리스트 양성원과 조영창, 피아니스트 김영호, 비올리스트 김상진, 플루티스트 이해경 등의 한국 음악가들과 저명한 중국 연주자 및 유럽에서 초청된 연주자들이 한 팀을 이루는 실내악 공연으로 이뤄졌다. 초청된 아티스트들 중 XU Zhong 슈중(중국), Yuan Sheng 유안 쉑(중국), Romain Guyot 로맹 귀요(프랑스)는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에 직접 참가했던 음악가들이며 Siqing LU 쓰칭 루, Hui Jin 휘 진, Min-En Zhou 민은 쯔우, Lei Fang 레이 팡, Shiran WANG 쉬란 왕은 중국을 대표하여 맹렬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스타급 음악가들이다. 연주는 하차투리안, 멘델스존, 라벨, 브람스 등 대표적인 유명 실내악 레퍼토리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실내악 애호가라면 실내악의 진수를 만끽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한국 원화 기준으로 최고 45,000원(300위안)에서 최저 7,500원(50위안)으로 서울 공연과 비슷한 금액대로 책정 되었는데, 중국과 한국의 물가 차이를 감안해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료 관객 점유율이 90%를 상회하여 클래식 음악을 위시한 한국 문화예술의 한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중국 현지에서도 SSF 공연에 대한 현지 반응에 놀랐다. 북경현지에서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최상열 북경동량문화전파유한공사 대표는 “클래식 공연, 그것도 실내악 공연에 이렇게 많은 관객이 모여든 것은 북경에서 지낸지 1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SSF 공연이 중국 관객들의 음악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SSF 북경공연은 중국 관객들의 호응도 측면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

한 기회였다. 중국 현지 공연문화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한다면 한류가 대중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순수예술의 영역까지 뻗어나가기에 모자람이 없고, 음악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우호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이번 공연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국가대극원 예술감독 Chen Zuohuang (첸 주오황)은 “이제 출발선에 있는 북경도 분발하여 SSF같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문화 행사를 기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SSF 사무국 스태프들과 호흡을 맞춰 현지 업무를 진행한 국가대극원의 프로그래머 Alex Hui Sun(알렉스 휘 신)은 “중국에서 한류 열풍은 비록 대중문화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 음악 팬들이 한국 클래식 음악 무대에 보이는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에 있는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이 더 활발하게 중국 무대에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개최의 선배 도시인 서울이 2008 북경 올림픽을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하는 우정의 행사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음악을 통한 세계 인과의 우정’이라는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의 비전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첫 해외 연주의 성공을 토대로 더 많은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한국의 공연문화를 중국에 전파시키고 공연문화계에 한류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글 정일한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상해 오리엔탈 아트센터 전경





서주희의 <Spota 08>

젊은 예술가들의 향연

NArT 실연 심사장

7월 16일, 18일 이틀 간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NArT 실연 심사가 창동 열린 극장에서 열렸다.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무용 6팀, 연극 6팀의 젊은 예술가들의 실연은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참신하고 다양한 무대로 열기를 더했다.



한창호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젊은 안무가들의 실험적인 무대를 객석에서 바라보며

7월 16일, 무용 실연 심사를 보러 가던 날은 비가 내렸다. 간만에 내리는 비라서인지 더위에 달궈진 아스팔트는 서늘하게 식어있었다. 눅눅한 습기는 여전했지만 창동 열린극장의 천막극장 위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실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선정된 젊은 예술가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여분. 그 시간 동안 심사위원들에게 시도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담아 보여줘야 한다. 공연이 끝난 뒤 공연을 만든 안무(연출)가의 인터뷰가 있었다. 무대 위에서 한껏 땀을 흘리고 난 안무가의 가쁜 숨소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시간이었다. 무용 분야 여섯 편의 실연 작품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발표자였던 김기훈은 LDP 무용단에서 활동 중인 안무가이다. 그가 보여준 작품 <cage>는 듀안 마이클의 사진에서 영감을 얻었다. 연속된 틀의 나열을 보면서 앞 장면의 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틀과 틀 사이에 파생되는



김기훈의 <Cage>



김선희의 <괴짜섬>



노진환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태상의 <콜로소>

상상의 여백을 즐기게끔 하는 게 그의 시도였다. 무용수들의 역동적이고도 충동적인 움직임은 틀 안에서 몸부림치는 인간 존재를 바라보게 한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절망하고 살아 움직임으로써 역으로 객석을 향해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두 번째 발표자, 김선이의 <괴짜섬>은 다윈 진화론의 고향인 갈라파고스 제도의 풍경을 현대인에 빗대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괴짜들의 향연으로 표현해 냈다. 무용수들은 적도 새들로 분해 절제되고 양식화된 움직임으로 웃음을 준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적도 새들이 어느 순간 사랑을 하고 다툼을 벌인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현실이 적도 하늘 아래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태고의 자연의 모습은 무엇이었을 까를 상상해 보게 하는 작품이었다.

노진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무용극이다. 삶과 죽음, 동·서양, 물과 불, 흑과 백, 수평과 수직, 정(靜)과 동(動) 등 서로 대비된 이미지들을 이용해 충돌과 융합, 공존의 세계



최재희의 <소통>



이범의 <네 멋대로 해라>



김수연의 <어느 카바레 여가수의 죽음>

를 만들고 음악에 있어서도 전자음악과 레퀴엠, 상여소리 등 동·서양의 통과 의례에 사용되는 소리들을 편곡해 풍부한 무대를 꾸몄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일상적인 몸짓에서 출발해 제의적이고 극적인 움직임, 일상적인 죽음에서 시작해 신화적인 탄생의 문제로 변이되어 가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쉬는 시간 이후 진행된 이태상의 <코뿔소>는 이오네스코의 희곡 코뿔소를 현대적으로, 무용으로 변안해 풀어낸 작품이다. 원작의 코뿔소가 집단적 중병인 전염병에 대항하는 인간의 변질된 모습을 다루었다면, 이태상의 <코뿔소>는 현대 도시인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비극적 일면을 코뿔소를 통해 우화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했다. 지리멸렬한 일상에 찾아온 균열과 사랑의 우연에 매달리는 인간의 모습을 채치 있고 명료하게 보여준 작품이었다.

무대 위에 설치된 여백의 공간에 무용수들이 차례로 불을 밝힌다. 들어왔다 나가고, 조심스럽게 들고 온 불을 놓고 가는 움직임 자체가 리듬을 만들어내 장관을 연출한다. 밝혀진 불빛들을 보면서 사회적 이슈, 개인적 사연들이 떠오른다. 최재희 안무가의 <소통>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침묵의 에너지, 에고(ego)의 감성, 몸의 감각. 이것은 관객과의 소통이며 관계의 소통을 이해하려는 도구가 되었다.

한창호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어떻게 하면 무용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 현대 무용과 전통적인 서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엮보이는 작품이다. 풍성하게 차려진 세트와 기승전결의 구조로 짜여진 서사 전개는 대중적이고도 해학적인 무대를 만들어내 무용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 주기에 충분했다. 무용수들의 풍성한 연기력이 돋보인 이 실연이 관객과의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연극무대 위의 땀과 열정, 그 치열한 현장 속으로

7월 18일은 연극 실연 심사가 있는 날이었다. 무용 실연 심사와 마찬가지로 모두 6팀의 실연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20여분의 실연과 인터뷰.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 팀은 무대 세팅을 마쳐야 한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무대 뒤의 풍경과는 달리, 무대 앞에는 세 명의 심사위원과 작업에 참여한 최소 스태프만이 객석에 있었다. 막이 오르는 긴장된 순간이 고스란히 실연 작품을 준비한 연출가들에게 전이되었을 것이다. 연극 분야 실연 심사를 받은 여섯 편의 작품을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팀은 프로젝트 이리 연출가인 이범의 <네 멋대로 해라>였다. 이 작품은 프랑스 감독 장 뤽 고다르의 동명 영화에서 단상을 얻고, 브레히트의 연극 이론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극이다. 연출가 이범은 고전적인 방식의 즐거움을 파괴하고 이미지의 재구성, 배우들의 언어와 관계를 통해 새로운 형식을 시도해 보려 했다. 낯선 공간 속으로 떨어진 배우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조리한 상황, 새로운 상황에서 던져지는 또 다른 의문들. 새로운 형식과 주제를 탐구해 보려는 연출가의 의

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손기호의 <복사꽃 지면 송화 가루 날리고>는 노년의 부부를 통해 인연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 그들에게는 다정함 대신 살아온 세월동안 결코 헤집지 못한 낡은 추억이 있다. 서로에게 굴레로, 상처로 남아 있는 추억. 그 상처를 통해 결국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갈한 무대와 소품 사용, 배우들의 안정된 연기로 만들어진 무대였다.

서주희의 <Sphota 08>은 연극의 기원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바이올린을 켜는 악사의 연주가 계속되고 등장인물과 스태프로 분하는 배우들은 일상복이 아닌 의상을 입어 무대 위의 판타지를 불러일으킨다. 공연 연습과 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출의 고민, 동선과 세트의 결정, 등장인물의 배치, 등장인물의 욕구 등이 충돌하면서 연극성이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동이향의 <어느 날 문득, 네 개의 문>은 파편화되어 가는 현실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 이외의 이웃에 대한 철저한 무심함을 네 개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네 개의 문은 열려 있어다가갈 수도, 닫혀 있어 혼자 있을 수도 있는 세상으로의 창구이다. 동창들의 만남, 개에 물려 죽은 아이, 아내를 죽인 남자의 이야기, 가출한 고등학생이 동물원에 간 이야기 등 네 개의 에피소드가 단편적으로 펼쳐지고, 관객은 그 빈 공간을 상상하면서 전체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보는 재미를 주는 작품이었다.

김수연은 음악연극 <어느 카바레 여가수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어느 카바레 여가수의 죽음에서부터 극은 시작된다. 여가수의 유품을 놓고 그녀가 왜 죽었을까를 추론해 보는 사람들. 여기엔 그녀의 마지막 생애 주변인이었던 인물들이 모여 있다. 이들 모두는 여가수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달라 과연 이들이 아는 그녀가 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도 들게 하지만 그 다름을 통해 한 인간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카바레 여가수답게 간간이 등장하는 노래, 과거와 현재의 자유로운 넘나들, 마이크를 앞에 둔 인물들의 고백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시연이었다.

이수연의 멀티미디어 환상극 <오, 라라라이프!>는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회극적인 이야기를 서사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멀티미디어의 적극적인 사용과 움직임이 서사를 구성해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전통적인 연극의 선입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점점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는 과정을 때론 우스꽝스럽게, 때론 양식적으로 보여주는 <오, 라라라이프!>. 20분간의 실연에서는 멀티미디어 환상극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영상과 녹음된 대사, 리듬감 있는 신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나락으로 빠지는 인간을 통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에게 구원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다.

손기호의 <복사꽃 지면 송화 가루 날리고>



동이향의 <어느 날 문득, 네 개의 문>



이수연의 <오, 라라라이프!>



20분의 짧은 시간은 젊은 예술가들의 치열함과 새로운 시도를 엿보기에는 충분했다. 이틀간의 실연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두 팀 이내로 지원작을 선정한다. 이 작품들은 서울문화재단의 제작지원을 받아 2008, 2009년 무대에 오를 것이다. 

글 김민정 기자



2008년 6월 28일 오후, 문래동을 찾은 낯선 이들

#1 비가 드문드문 내리는 토요일 오후. 문래동 근린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복장이었다. 티셔츠에 반바지, 삼색 슬리퍼, 편한 고무줄 치마를 입은 사람들은 공원 안 정자에 앉아 한가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산책을 나온 아이들도 어지러이 뛰어다녔다. 아이들의 동선은 어른들의 동선보다 큰 법이다. 근린공원 입구에 아이들이 모여서 까르르 웃는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웃음소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아이들을 흥분하게 만든 주인공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채, 머리에 신사 모자를 쓰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자꾸만 꺼내는 사람. 그 사람은 시종일관 웃음기 없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만들고 보여줬다. 심지어는 여자 한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더니 가짜 브래지어를 꺼내어 마치 여자의 몸에서 빼낸 양 뻗히 보이는 눈속임도 보여줬다. 사람들은 그의 손놀림이 완성될 때마다 웃음과 박수로 답했다. 번번한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소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워했다. 그가 바로 예전으로 치자면 거리에 다니던 광대일 것이다.

#2 문래동 대형마트 홈플러스 앞 벤치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목격됐다. 장바구니를 든 아저씨 옆에 웬 중절모의 신사가 앉아 있는 것 아닌가. 그와 등을 돌린 채로 앉아 있는 중절모의 신사는 마치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온 모습이었다. 장바구니를 든 아저씨는 연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중절모 신사는 지팡이를 쥐었다 놓았다 하며 주변을 두

어느 날, 문래동에 배달된 행복한 소포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3@문래동’ 현장에서

철재 상가가 들어찬 문래동, 그 낡고 녹슨 거리의 일상에 ‘예술’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배달됐다.

지난 27~2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문래동-유랑극단의 시간여행’ 속으로 들어가 보자.



리번거렸다. 한편 맞은 편 벤치에는 더욱 화려한 의상을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목을 조인 검은 망토를 길게 늘어뜨리고 모자까지 똑바로 쓴 모양새가 일제시대 학생들의 모습이 분명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던 아이는 그가 손짓하자 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의 누나는 신기한 듯 그에게 다가가 흰 손으로 만져보았다. 낯선 복장의 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를 연신 찍어댔다. 도무지 21세기 문래동에 들를 만한 사람들로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니,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은 제 갈 길을 간다. 종로도 아니요, 광화문 한복판도 아니요, 문래동이라니. 낯선 이들의 출현은 시가지가 아닌 주택가 인근에서 펼쳐졌기에, 더욱 생활 깊어 스며든 것이다. 2008년 6월 28일 오후 5시께 20세기 초 유랑극단의 문래동 표류기는 시작되었다.

〈이수일과 심순애〉, 문래동 대형마트 출몰기

철제 상가에서 출발해 문래동 일대를 거닐다가 홈플러스 앞에 출몰한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이수일과 심순애〉의 배우들이다. 〈이수일과 심순애〉는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3@문래동’의 공식 프로그램이다. 문래 근린공원에서 사람들에게 둘러 쌓여있던 마이미스트의 공연도 이번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는 시민과 예술이 친해지기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곳은 경계없는예술센터(ASF/Centre d'Arts Sans Frontieres). 경계없는예술센터는 1996년부터 거리극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해왔다. 그들은 오늘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최근에는 관심이 많아졌지만) 예술의 사회적 치유 기능에 관심을 가진다. 거리극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만큼 기존의 연극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경계들을 넘어선다. 그 첫 번째는 극장이고, 두 번째는 장르, 세 번째는 국경이다. 이러한 경계를 깨고, 새로운 양태의 공연을 연구하고 창작하는 데에 뜻을 같이하는 예술가들이 비영리적으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경계없는예술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거리극단체이기도 하다. 1996년부터 연구 활동을 계속해 오다가 2001년 지하철 혜화역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에서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2004년 거리극의 발상지인 프랑스 오리악거리극축제에 아시아단체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이래 다방면으로 국제 교류와 해외공연활동을 진행해왔다. 2007년부터는 일상 공간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원공공예술프로젝트인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8년부터 여의도한강봄



이번 공연의 중심 작품인 〈이수일과 심순애〉는 잘못 배달된 소포처럼 엉뚱한 시공간에 떨어져버린 유랑극단이 21세기 문래동에서 거리극을 펼친다는 콘셉트로 시작한다. 유랑극단 단원들은 그 당시 가장 최신 유행으로 자부하던 차림으로 공연 홍보를 하기 위해 문래동 인근을 홍보한다. 신극 홍보를 위해 거리를 떠돌던 모습은 〈이수일과 심순애〉가 한창 공연되었던 1900년대 초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1908년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신극을 도입한 때이다. 이후, 서양식 극예술에 심취한 당시의 지식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연극을 전파하게 되었고 소위 유랑극단으로 불린 이들은 장터와 거리를 떠돌며 공연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 조금씩 밀려들어오고 있던 상황에서 예술가들도 계몽의 사명과 도전의 정신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새 시대의 도래에 동참했던 것이다.

약 100년 만에 대한민국 문래동에 똑 떨어진 이들의 기분은 어떨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빚어낸 놀라운 변화에 충격을 받게 된다. 놀란 건 유랑극단만이 아니다. 현대를 사는 시민들도 그들의 모습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하다. 처음에 어리둥절했던 이들은 서로에게 가졌던 경계심을 점차 낮추기 시작한다. 서로 눈빛을 교류하고 웃음을 섞고 손짓을 하면서 어느새 그들을 가로막았던 시간의 벽은 점점 허물어진다. 문래근린공원에서 유랑극단이 공연을 시작하면서 이들은 일상에 등장한 깜짝 선물 같은 예술을 마음껏 즐기게 된다.

두 번째 문래동을 방문한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는 아직도 동네 주민들에게 많이 낯설지만 처음보다는 한 뼘 더 주민들과 친근해진느

꽃축제와 병행하여 열리는 거리극 축제인 비아페스티벌(VIAF; Various, Interdisciplinary, Artistic Festival)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 활동은 기본적으로 예술 치유에 바탕을 둔다. 이화원 · 윤기원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문화, 예술적으로 소외된 지역, 혹은 도심의 일상에 침투하여 메마른 삶의 환경에 예술을 통한 환상과 희망을 제공하는 문화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적 특성 및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특정 예술의 틀에 머무르지 않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 작업을 시도한다.

지난 해 문래동에서 ‘용광로에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는 같은 해 청계천에서 ‘望’이라는 부제로 열렸으며, 올해 ‘유랑극단의 시간여행’으로 다시 문래동을 찾았다. 올 10월에는 서울도심 광화문 일대 등지에서 또 한 차례 거리극을 펼칠 예정이다.



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호응도는 낮았다고 한다.

“처음 철재 상가 주변에서 공연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간혹 ‘저 사람들 뭐 하나’ 싶어서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있었지요.”

이화원 ASF 대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게 몹시 힘들었다고 한다. 부녀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알려보기도 했다. 발품 판 노력과 입소문이 더해져 이번 프로젝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찾아주었다고 한다. 어제(27일)는 날이 참 좋아서, 200명 정도 주민이 모여서 관람했다고 하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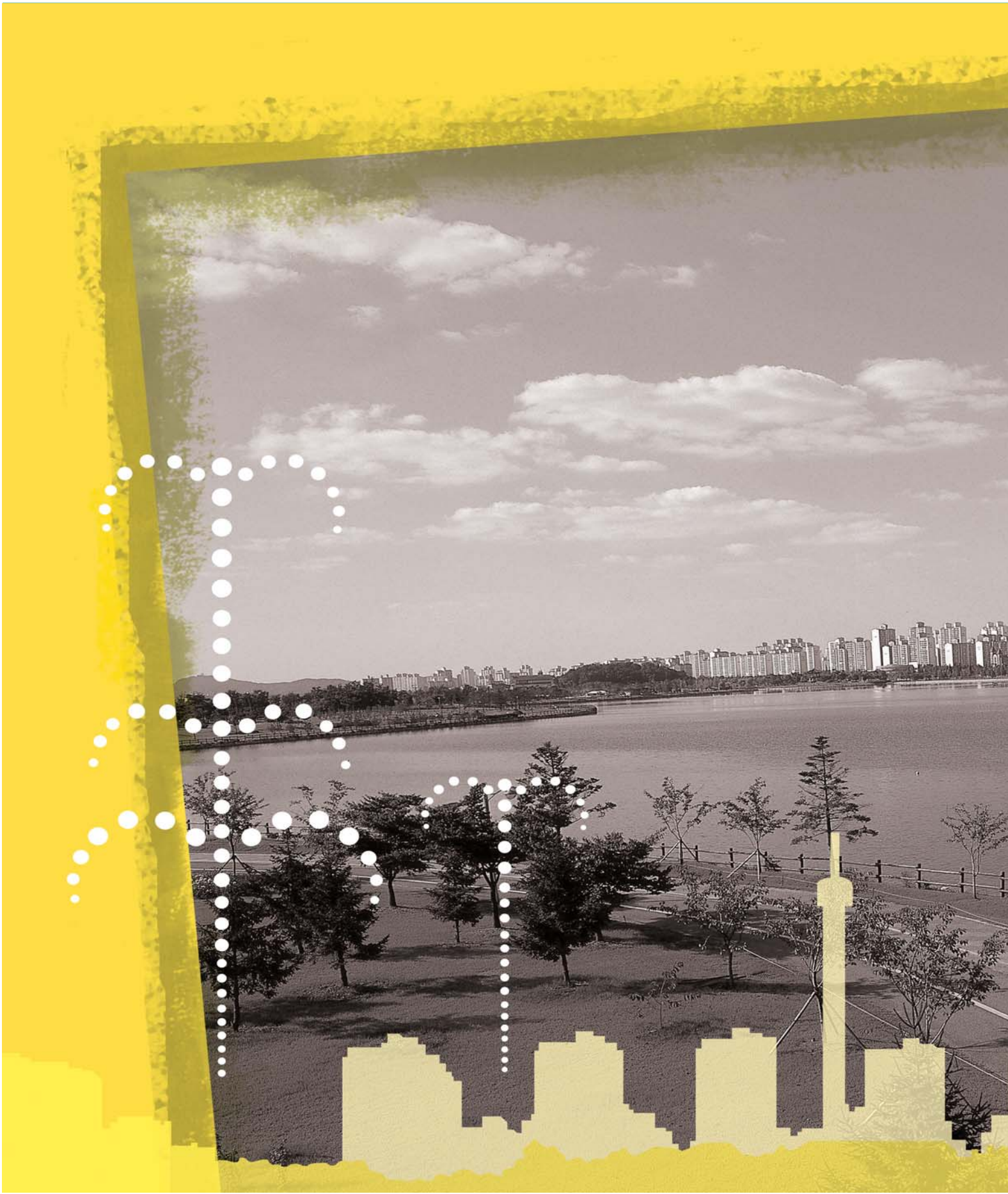
문래동, 예술가들의 자율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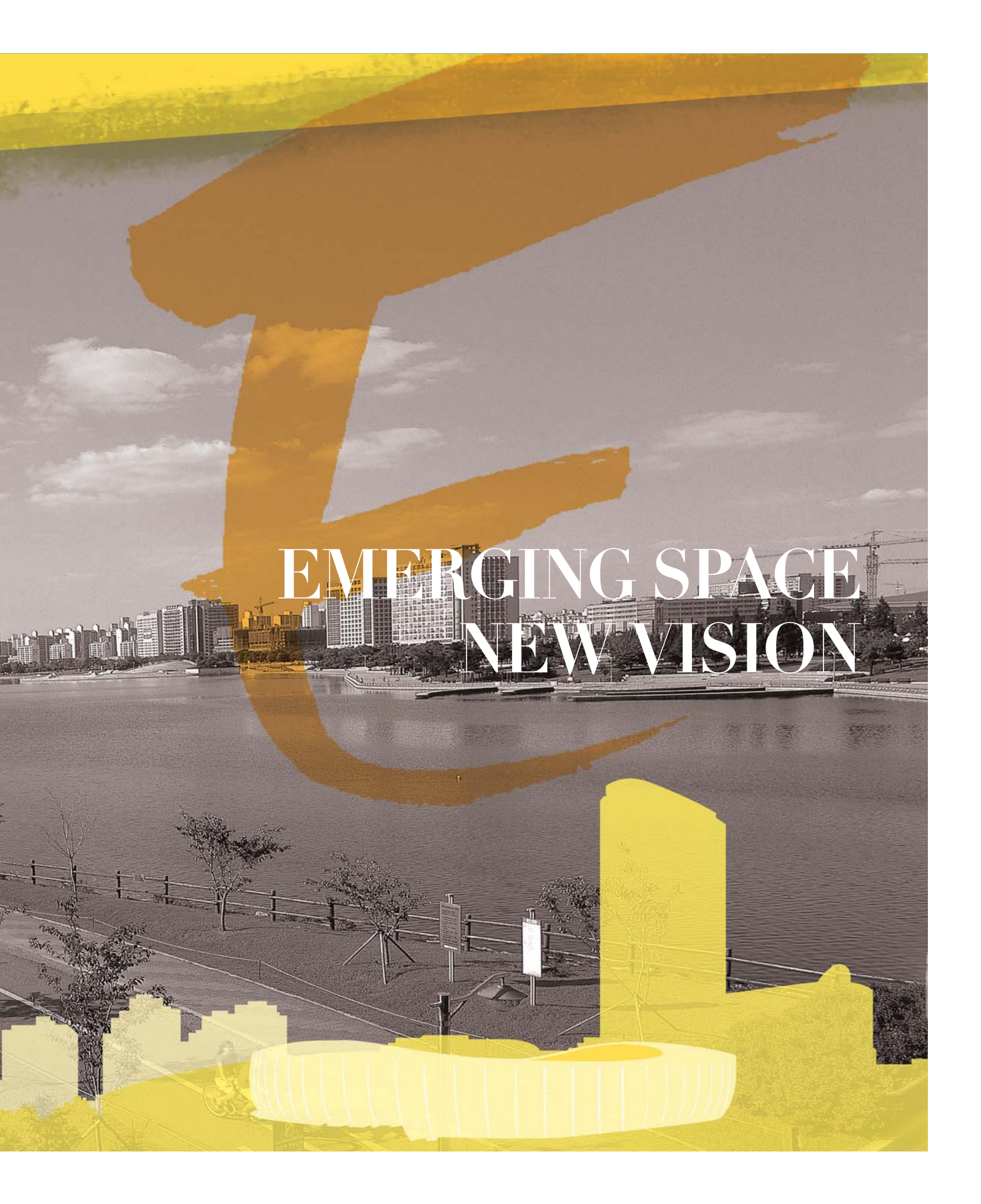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가 문래동에서 처음 시작된 이유는 예술가들이 문래동에 작업실을 꾸려 모여들고 있는 사연 때문이다. 문래동은 철재상가로 유명했다. 1960년대 이래 ‘대한민국 철강재 판매 1번지’로 활황을 이뤘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심 재개발 사업과 외환위기, 철강 수요처 감소,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등의 악재가 겹쳐 쇠락했다. 다른 곳보다 다소 임대료가 ‘싼’ 문래동에 4, 5년 전부터 젊은 예술인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문래예술공단(Mullae Artist Village)은 문래동 철재상가 및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경계없는예술센터의 프로젝트도 이곳 문래동에 모여든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었다. 이들의 전문 분야는 마임, 무용, 미술, 사진, 영상, 거리극, 퍼포먼스, 문학창작 등 다양하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새로운 영역의 예술을 개척해 나가는 데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실험적 예술가들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약 60명의 예술가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을 이루어 다양한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느새 종합예술창작단지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문래동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율적 공동체라는 점 때문이다. 자의든 타의든 이곳 문래동에 모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작업, 국내외 예술인들의 교류를 활성화 하면서 새로운 예술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계없는예술프로젝트와 같이 지역으로 직접 예술가가 뛰어 나가 지역민과 교감하며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조하고 도시 재생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글 전지영 기자







EMERGING SPACE NEW VISION

EMERGING SPACE, NEW VISION



1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의 외부 야경 모습. 외우공원이 건물과 바로 붙어 있어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싱그럽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박물관을 둘러보고 나와 공원을 산책하면 또 다른 분위기를 맞볼 수 있다.

한국디자인 120년 역사가 살아숨쉰다

근현대디자인박물관

한국인들의 삶 속에 ‘디자인’은 무엇일까. 때로는 예술품으로 때로는 생활 용품으로 그 용도가 무궁무진한 디자인. 사람들의 삶 속 군데군데 스며들었던 디자인의 역사를 짚어볼 수 있는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을 만나보자.

최근 들어 디자인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한해 배출되는 디자이너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많은 수의 디자이너가 배출되는 현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찾기 힘들다. 현장에 있는 디자이너를 더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많은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학교에 개설된 서구 디자인사를 배웠기 때문에 서구 디자이너들의 이름을 줄줄 꿰 만큼 이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연구된 역사조차 일천할 뿐더러 알려져 있는 내용이 짧기만 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디자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은 놀랄 따름이다.

지난 봄, 문을 연 근현대디자인박물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8년 3월 14일 드디어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이 개관되었다. 2~3층에 위치한 상설전시관에는 필자가 20여 년간에 걸쳐 모은 수많은 사료들 중에서 엄선하여 1,6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은 전체 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는 1개 층, 지상으로로는 5개 층이 구성되어 있다. 크지는 않지만 기능적으로 공간 활용이 유용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리모델링 하였다. 일조권으로 인해 건물 한 면이 깎여나가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진다. 가장 넓은 공간은 지하 1층이며 때문에 갤러리 또는 다목적 홀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옥상층은 디자이너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3면이 유리로 둘러싸여 시원하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3 상설전시관 2개 층에는 국내 최초의 진귀한 디자인사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연대기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한 눈에 한국디자인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보이는 것은 2층에 위치한 제1관과 제2관의 모습이다.

4 우리나라에 수차례 와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한국 관련 책자도 발간한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엘리자베스 키츠의 작품으로 제작한 1934년 미니달력, 손에 들려 있는 등을 들치면 12개월의 달력이 나오게 디자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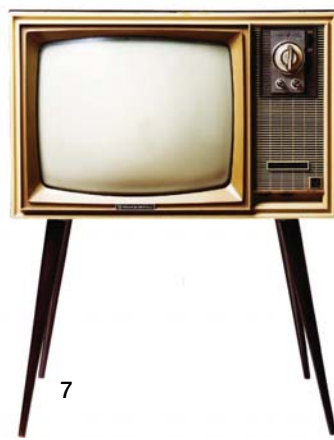




5



6



7



8



9



10



11



12



13



14

5 개화기인 1983년 10월 31일 박영호에 의해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정부기관인 박문국에서 인쇄해 배포하였으며 타블로이드판보다 작은 19*25cm의 책자형으로 제작했다. 개화의 격동기에 필화사건과 경영난으로 창간 14개월 만에 40여 호를 발간하고 폐간되었다. 6 동아일보 창간호. 국내에 몇 군데 소장되어 있지 않은 귀중한 자료로서 창간호 외곽에 그려진 비천상이 한편의 작품같이 정성들어 제작한 느낌을 준다. 7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 TV VS-191. 심플하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당시 몇 개월씩 기다렸다 구매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채널이 로터리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 지금도 수신이 가능할 정도이다. 8 1977년에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캠페인캐릭터 아이미. 미풍은 이 캐릭터를 사용해 미원과의 치열한 판촉경쟁을 시도하였으나 약 10%의 판매 신장 밖에 이루지 못하고 미원의 아성을 허물지 못했다. 9 삼성에서 제작한 초기의 휴대폰인 ST-1000. 큰 가방 크기의 이 휴대폰은 위에 손잡이가 있어 들고 다니면서 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0 일제시대에 제작돼 외국으로까지 수출됐던 사진엽서. 그중 기생을 소재로 한 엽서로서 관기의 모습이다. 당시 기생은 악기연주, 노래, 춤, 서예 등 다방면에 기예를 갖춘 엔터테이너였다. 오늘날의 모바일화보 역할을 이때는 사진엽서가 대신하였다. 11 1920년 경에 제작된 경성방직 포스터. 한복 입은 한국여인과 태극이 등장하는 심볼마크 그리고 태극성이라는 브랜드, 광고문안의 한글사용 등 당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적 디자인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12 두산그룹을 창업한 박승직의 부인인 정정숙이 사은품으로 만들어 배포하다 예상 밖에 인기를 끌자 정부에 공산품 관허 1호로 등록해 우리나라 근대 화장품 1호가 된 박가분. 양장스럽고 예쁜 상자 속에 넣어 팔아 당시 여인들의 구매 1호 대상이 된 제품이다. 하도 인기가 있으니 비슷하다 못해 똑같은 모양의 짝퉁이 등장하였다. 바로 촌기분이다. 13 모더니스트로 한 시대를 풍미한 시인 이상이 장정한 김기림의 시집 <기상도>. 1936년도에 발간한 책자로 단순하고 강력한 디자인이 시대를 뛰어 넘어 오늘날의 디자이너에게도 자극을 줄 정도로 첨단적이다. 14 우리나라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 A-501. 단아하며 약간의 곡선을 첨가해 유연함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공업사 및 디자인사의 기념비적인 제품이다.

독특한 콘셉트 속에 빛나는 한국의 디자인 역사

‘저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이란 콘셉트의 상설전시장은 본 박물관의 핵심부분으로서 북두칠성과 같이 7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다. 국내 최초의 사료들을 위주로 전시하였으며 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전시장의 규모를 감안해 부피가 큰 의상과 건축 등의 자료는 배제하였다.

2층은 광복 전 시기로 2개의 섹션이, 3층에는 광복 후 시기의 5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섹션별로 다음과 같은 시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시된 사료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제1관(胎動期): 1880~1910년 / 세계 근대 문화의 유입과 디자인 개념의 태동

제2관(停滯期): 1910~1945년 / 우리 문화 정체성의 혼미와 국내 기업의 출발

제3관(發芽期): 1945~1961년 / 디자인 유용성의 사회적 인식 발아 및 확대

제4관(草創期): 1961~1976년 / 경제발전 및 수출 동반자로서 디자인 역할 수행

제5관(發展期): 1976~1988년 / 디자인의 세분화와 전문화 그리고 국제화의 모색

제6관(塗躍期): 1988~2000년 / 한국형 디자인의 정착 및 국제화와 세계화

제7관(成熟期): 2000년 이후 / 뉴 밀레니엄 시대와 한국 디자인의 위상 고조

국기에서 생활 용품까지 다양한 소장품들의 향연

한편,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 관련 자료부터 최초 신문들의 창간호,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일제시대 각종 디자인의 흔적들, 광복 후 어려웠던 시대의 애뜻한 정이 묻어나는 디자인 제품, 경제개발에 목매던 시기의 맘에 흠뻑 젖은 각종 제품들, 가정의 꿈과 희망이 담긴 초기의 가전제품,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나타난 소비재 제품들을 비롯하여 세계 속에 당당히 우리 디자인 능력을 과시하는 첨단 가전제품 및 올림픽과 월드컵에 관한 디자인 등 한국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장품 약 1,6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듣고 보고 체험하는 디자인 역사의 흐름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만이 디자인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디자인사료를만 전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반면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의 특징은 우리나라 디자인 관련 사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에서 제작된 것들도 있지만 이는 일부분이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졌던 것들로 국한하였다.

개화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디자인 역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성설 전시되는 타 박물관과 달리 신규 구입한 사료를 수시로 교체 전시한다. 또한 국내의 저명 디자이너의 목소리를 화면과 영상으로 항상 만나 볼 수 있고, 특별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의 역사적 흐름을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

4월 말까지 이어진 개관기념특별전, ‘봄바람에 실려 온 여인의 향기 - 春風女香’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디자인 세미나와 음악회, 국제디자인교류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광양에서부터 강원도

관람시간

평일 : 10:00~18:00 / 휴관일 : 월요일

관련문의

전화 : 070-7010-4346~7

홈페이지 : <http://www.designmuseum.or.kr>

강릉 및 춘천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관람객들이 발걸음이 이어졌다. 또한 4월부터 한국디자인역사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이외에도 디자인계 원로와의 대화, 중진 디자이너 초청 간담회와 특별기획전 등이 열린다. 한편, 연말에는 디자인뮤지엄페스티벌을 통해 한 해 동안의 한국디자인역사를 총정리할 계획이다.

근현대디자인박물관은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나라 디자인의 120년 역사를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살펴볼 수 있으며 혼신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 낸 우리나라 디자인의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국내의 디자이너들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디자이너들부터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부담 없이 찾아와 함께 보고 느끼며 자극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 갖가지 필요한 아이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한국디자인의 역사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디자인광장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글 박임종 (근현대디자인박물관 관장,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익선동 한옥마을

북촌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그러니까 3호선 안국역에서 북촌으로 나가는 방향과 정반대 출구로 나서면 윤현궁과 낙원상가 사이에 또 하나의 숨겨진 한옥마을이 있다. 북촌이 나날이 이름을 드높이며 윤을 내는 것과 달리, 시간이 멈춰선 이곳은 오늘을 어제와 같이 보내고 있다. 몇몇 게스트하우스가 모여 있는 덕에 한국인 보다 외국 배낭족에게 더 알려진 서울 속 올드 시티. 처마들이 이마를 맞대고 담장이 어깨를 맞댄 아름다운 한옥마을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서울 구석구석을 탐험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나 근대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에겐 이미 유명한 동네. 심심치 않게 블로그에서 만날 수 있는 디카족의 출사지. 2004년부터 재개발 소식이 들려와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안부가 궁금해 지던 골목, 익선동 누동궁길의 2008년은 여전히 변함없다. 오랜만에 발길 닿은 지금, 수년 전 우연히 이 골목을 처음 만나 설레던 가슴도 그때처럼 똑같이 그러하다. 삼청동이 한적하고 북촌이 명성 없던 십년 전처럼, 서울 한가운데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익선동은 해와 그림자만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는 곳이다. 참새가 날아와 앉는 골목, 큰아치를 이룬 화분들도 여전히 안녕하시다.

시대가 멈춰선 골목과 만나다

1920년대라고 했다. 한옥연구가인 김란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재의 익선동 한옥촌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주택건설업체인 '건양사'의 정세권씨가 대지를 매입해 30, 60평짜리 한옥을 지어 분양한데서 생겨났다고 한다. 3·1운동이 끝나고 회사령이 철폐되자 일

이곳 한옥의 대문들은 모두 옹궁문, 남대문 부럽지 않다. 반짝이는 금속 대문 장식을 만드는 곳이 사라진 요즘 보기 드문 모습이다.





낙원빌딩에서 내려다보이는 익선동 한옥 마을



생년도를 알 길이 없는 오래된 타일. 익선동 한옥마을엔 독특한 타일로 포장된 집들이 여럿이다. 이것들을 둘러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를 준다.

본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건설시장에서 대지를 매입해 '조선인에게는 조선식 집을 지어주어야 한다'며 가회동, 인사동, 익선동, 봉익동, 삼청동 그리고 명륜동, 성북동까지 소형택지로 분할해 집장사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다.

도시형 한옥이라고도 불리는 이 쌍둥이 마을들이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까지는 한 세기의 꼭짓점을 넘겨야 했다. 그러나 빠르게 변신을 거듭하는 서울에서 '보존'의 대상이 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가회동, 계동, 재동, 화동, 원서동, 삼청동 일대를 이르는 '북촌'은 삼척동자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으리라. 한옥의 정취를 맛보려 인사동 골목을 찾은 사람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런 열풍 속에서 익선동 일대는 창덕궁과 종로 사이에 위치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주목받지 못했다. 날로 새 단장을 해가는 북촌이 관광지의 느낌을 준다면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에 나오는 그마당 깊은 집처럼 익선동은 60년대 어디쯤에 멈춰서 있다. 그리고 지난해만 해도 커다란 재개발 벽보가 길목마다 붙어 있었다.

하루를 사는 풍경을 엿보다

슬며시 대문 안을 훑어보다가 소심한 마음에 아닌 척 돌아선다. '구경꾼이 었지, 참.' 여행자라는 멋들어진 타이틀을 머리 위에 붙여보아도 심란하다. 누군가의 삶의 터전 앞에서 아무리 '문화애호가' 같은 가면을 뒤집어써 본들 단지



‘구경꾼’ 일뿐이다. 그래서 재개발 벽보 앞에서도 체념 비슷한 걸 했었다. 당당히 구경할 수 있으려면 먼저 주인이 손님을 맞을 자세로 받아주어야 하는데 익선동에 ‘내 집으로 오시오’ 하고 간판을 내건 카페나 미술관은 없고 온통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집’ 들 뿐이다. 그래서 더 호기심이 나는데, 여간 멋쩍지가 않다. 대문엔 모두 용궁 같은 남대문 조각이 붙어있고 그너머엔 간유리가 달린 미닫이문이 하나 더 있다. 그 틈 사이로 마당이 보이고 화초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도 빨래가 널려있다. 누가 살고 계시는지, 요즘 많은 이들이 이런 삶을 동경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지, 그래도 재개발하고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으신지 여쭙보고도 싶지만 소심한 구경꾼은 거기서 그만이다. 담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번에 수리를 해서 새 한옥으로 아주 잘 꾸며놔어.’라며 얘기를 나누시는 아주머니들 수다소리에 밀도 끝도 없이 안심을 해버린다. 앞으로 한동안 이나마 이곳은 여전한 것 같고 오후 햇살도 아직은 길게 남아있다.

깊고 진득한 감상에 젖어 걷다

종로 낙원 상가 뒤편 종로 세무서 앞에 자리한 한옥마을은 사실 끈게 뻗은 작은 골목 세 개가 전부다. 한 바퀴를 도는데 5분이나 걸릴까? 이 동네 볼거리라곤 아주 오래된 타일과 집집마다 색다른 쇠창살뿐이다. 그러나 기와지붕 아래 초록 잎을 피운 화분들까지 이곳의 정취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이기에 5분을 50분처럼 산책하는 것이 최선의 요령이다. 집집마다 대문 장식은 어떠한지, 화분을 키운 할머니의 정성이 어떠한지를 곰곰이 감상하며 최대한 느긋하게 걸음을 즐겨 본다. 쇠창살 무늬를 따라 시선을 돌려도 보고 세월 문은 타일과 잠시 대화를 나눠보는 4차원의 상상력도 즐겁다. 기왕 구경꾼이라면 제대로 진득한 구경꾼이 되어보자. 터널을 이룬 무궁화나무 아래를 지나는 순간도 흘러보내지 않는다. 시간, 아니 시대가 멈춰선 이곳에서 남들이 뭐라 하건 이런 생소를 즐기는 건 사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마주쳤었다. 푸른 눈의 외국인을 말이다. 대로변 뒤로도 두 겹의 골목 속에 숨겨진 이곳을 어떻게 냄새 맡고 찾아왔는지, 호기심어린 눈빛의 그는 나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왔었다. ‘여기 참 멋지죠? 이 골목을 여행하듯 돌아보는 한국사람 처음 봐요!’ 한 나라의 풍취를 제대로 집어내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일 때가 많다. 이국취향이라 했던가. 이국을 동경하며 서울을 끊임없이 탈출하고자 했던 나는 서울을 이국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습득하며 결국 서울에 정착하기로 타협을 했다. 그러자 서울은 괴상하고도 신선한 흥미들로 가득한 도시로 내게 다가왔다. 관광지를 훑는 대신 서울의 속살을 비집고 들어설 줄 아는 집요한 외국인에게도 그러하지 않을까. 오늘 마주친 외국인의 눈빛도 그와 같다. 오히려 그는 나보다 능숙한 솜씨로 골목을 빠져나간다. 이미 그에게 이곳은 클래식한 산책 코스가 되어있는 듯하다. 그의 뒷모습에서



처마를, 담장을 맞대고 살아가는 익선동 한옥 마을의 풍경. 아늑하고 소박한 꾸밈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익선동 점방의 공중전화는 여전히 건강한 수화음 소리를 자랑한다. 나무 미닫이 문 뒤로 백 원을 쥐어뜯고 과자를 고르던 어린 시절이 절로 떠오른다.

이 골목에 대한 깊은 감상이 느껴진다면 나만의 착각일까? 저 멀리서 또 한 쌍의 외국인 커플이 다가온다.

오래된 문화의 넋물을 따라서

한 해 사이 변한 것이 있다. 누동궁길 골목, 2500원하던 가정식 백반이 3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천막 아래 간이 테이블이 놓인 풍경은 그대로인데 여기도 세상 흐름에서 영 동떨어진 곳은 아닌가 보다. 누군가에겐 이 식당들이 후진국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사람 냄새 나는 풍경에 시장기 없어도 백반을 시켜보고야 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사라질듯 한 옛 풍경에 열광하는 요즘, 아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3000원 백반집 사장님 얼굴에 웃음꽃이 필지도 모른다. 보존한답시고 관광지가 되어 변질되는 것도 싫고 재개발로 사라지는 것도 마땅치 않아 어쩔 줄 모르던 소심한 구경꾼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 세기를 넘은 서울의 속살이 또 한 번의 세기를 넘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보탬이 되어야겠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과 파인더에 들이댄 오른 눈에 힘이 들어간다.

편의상 '익선동 한옥마을'로 부르고 있지만 누동궁길 세 골목 말고도 인근엔 한옥들이 꽤 많다. 종로 쪽에 가까운 돈의동, 창덕궁 쪽 윤니동, 길 건너 종묘 쪽 권농동과 봉익동까지 틈틈마다 옛집들이 들어차 있다. 간간이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돈화문로 주변은 오래된 문화의 넋물이 흘러내린다. 여



익선동 누동궁길에 있는 백반 식당. 호주머니가 가벼운 여행자에게 푸짐한 밥상을 제공한다. 여름 더위를 쫓으며 한가함을 즐기기에 넉넉한 공간.



익선동에서 제일 인상적인 풍경은 집집마다 화분을 가꾸는 모습이다. 때로는 골목에 아치를 이룰 정도로 초록이 우거진 곳도 있을 정도다.



익선동에서 돈화문로를 건너면 또한 한옥이 모여 있는 권농동과 봉익동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종묘의 서쪽 순라길이 나온다. 한가로운 산책이 기본 좋은 길이다.

러 국악인들의 연습실이 모여 있는 테다 한복이나 국악기 전문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국악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오래된 다방이며 가게들이 있어 20세기 서울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기도 하다. ‘대각사’라는 사찰 뒤로는 조선시대 순라군이 종묘를 지키며 순찰을 돌던 순라길이 이어진다. 만화 ‘식객’에 등장하는 고즈넉한 흥어요리집이 자리한 곳도 이곳이다. 골목을 남김 없이 돌아보아야 성이 풀리는 성격에 오늘의 여정도 길어진 여름 해 마냥 저물 줄을 모른다. 한옥 지킴이, 순라군이 되어 현란한 현대의 종로시내가 나타날 법하면 발길을 돌려 다음 골목속 한옥을 찾아본다.

이곳의 삶은 역사가 된다

찍어댄 사진과 스쳐간 생각들이 어떻게 인쇄되어 세상에 내보내질지 모르겠다. 부끄럽지만 여행을 하고 글을 쓰며 사진 찍는 일을 여태껏 소중하게 여겨 본적이 없다. ‘아마도 미미하겠지, 보잘 것 없겠지’ 라고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마을들을 만든 ‘건양사’의 정세권씨나 이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내 마음 같다면 나는 얼마나 실망이 클까. 하나하나의 삶이 엮어내는 세월의 두께가 바로 역사이고 유산임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익선동 한옥

마을은, 아니 ‘건양사’의 모든 한옥과 그 터전에서 피어난 사람들의 삶은 소중하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행의 참맛은 세계의 소중함을 피부로 새삼스럽게 느끼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새삼스러움을 신선하게 전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우리는 엮여져 있으므로, 우리는 처마를 맞대고 담장을 서로에게 기댄 채 살아가므로 그 소중함을 느끼고 보듬어주자. 이 마음을 담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여행은 외로운 선회가 아닌 활기찬 충전으로 오래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한다. 짬이 나거든 인터넷 서핑 대신 익선동을 서핑해 보시고, 그 경험담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란다. 저마다의 생경한 경험담이 기운 있는 마을을 살려놓을 것이다. 아. 직. 은. 재개발 철거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이 글을 읽으실 즈음에도 여전히 익선동은 시간을 멈추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글 사진 도우리

사진가이자 디자이너인 짬뽕, 책 만들고 공간미술 하는 호아, 그림 그리고 사진 찍는 상아가 함께하는 상상 실천 모임이다. 서울의 동네들을 탐험한 포토에세이 〈서울여행〉에 이어 올해도 서울을 여행하며, 이 지면을 통해 서울의 숨겨진 속살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2008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_ 여름방학맞이 특집 2탄

도보 가족여행 테마 서울 속 옛 발자취를 따라서

햇살 뜨거운 8월의 오후, 선조들과 옛 문인들의 생을 따라 나서자. 그들이 걷던 거리를 걷고 지난 세월 우리 민족문화의 발자취를 돌아보라. 뜨거운 숨을 가쁘게 내쉬는 도심의 아스팔트, 그 식지 않는 열기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테니.





同行

손기인의 박물관 나들이

삶의 동반자로 박물관 맞이하기

박물관이 어렵고 따분한 곳이기만 할까. 우리가 박물관을 멀리 하는 이유는 아마 무언가를 배워가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이제 박물관을 친구처럼 대하자. 이곳에 넘치는 삶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줄지도 모른다.



1 웅기민속 박물관
2 문신미술관에서 나누는 박물관이야기
3 예술과학문화기금포스터 - Colorado USA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동반자

사람이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동반자(同伴者)가 없다면 그 행로가 얼마나 외로울까? 학교에 가고 집에 올 때 친구와 동행하고,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가고 식사를 하고 술을 먹을 때도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는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삶과 동행하는 것은 사람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살아가는 동안 자주 하는 것, 자주 가는 곳, 자주 접하는 것. 즉 취미, 고향, 책과 같은 것들도 동행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우리하고는 삶의 환경이 조금 다르지만,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박물관 기금 조성(예술·과학·문화 기금)을 위한 투표에 찬성을 권고하는 홍보 포스터 글귀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Grow up with Art, and Life is becomes more Beautiful” (예술과 함께 자라면 그 삶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이들은 박물관이 우리 삶의 동반자이자 삶을 아름답게 해 줄 수 있는 장소임을 알려준다.

박물관과 빨리 친해지는 법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을 학습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이로 인하여 박물관이 따분하고 지겨운 장소일 것이라 지레 짐작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박물관들이 주로 역사박물관인 까닭에 전시된 유물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보기가 쉽지 않고 예술적인 면보다는 역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흥미를 끌기 어렵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박물관과 친해지려고 할 때도 먼저 박물관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 마음자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박물관을 찾아 갈 수도 있지만 박물관

관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와 동행하면서 박물관에서의 멋쩍음을 줄이고, 이들을 통하여 박물관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박물관 능력(Museum Literacy)을 배우면 박물관과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

사람들이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보여지는 앵겔지수(가계 지출총액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40~50인 때다. 앵겔지수가 70이상일 때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하여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앵겔지수가 10~20사이이므로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시점이다.

서울에는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이 120여 개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500여 개에 달하는 박물관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박물관들은 우리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즐겨 찾아야 할 공간임에 틀림없다.

박물관 중매쟁이 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에서 기획한 '박물관 나들이'는 박물관을 잘 알지 못했던



- 1 정영양 자수 박물관 입구에서 문양을 고르고 있는 참가자
- 2 초전섬유퀵 박물관에서 관람중인 참가자들
- 3 초전섬유퀵 박물관 체험활동





4



5

4 숙명여대 박물관을 관람중인 참가자
5 숙명여대 박물관 내부

사람들에게 박물관을 삶의 동반자로서 소개시켜주는 박물관 중매쟁이 프로젝트이다. 소개되는 박물관들은 일반인들이 자주 가는 곳은 아니지만 해당 박물관의 잠재력이 뛰어나며, 색다른 것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들이다. 따라서 대학 박물관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을 넣은 이유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전시품 중에 궁궐과 연관된 것이 많고 경희궁과 연계시켜 볼 수 있는 독특함과 박물관 나들이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행사인 만큼 서울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고 자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박물관은 내 친구

박물관을 친구 대하듯 편안한 곳으로 생각하라. 지식을 습득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소라 여기면 박물관을 찾는 일이 덜 부담스러울 것이다. 혼자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 또는 친구와 동행하여 함께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가 궁금하듯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찾게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박물관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면서 이곳에서의 기억을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글 손기인(Museum Educator)

이근배의 문학 혼의 발자취 서울, 샘솟는 문학의 물길을 찾아서

이 땅의 문학사를 일군 문인들의 지난 생이 아로새겨진 곳. 그곳에 숨은 이야기를 쫓아 생생한 문학의 현장을 눈으로 가슴으로 담아오자.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그들이 남긴 문학의 혼불은 더욱 활활 타오른다.





문학의 집 서울 현수막



'향수'시비, 휘문고



한국현대문학관-한글을 빛낸 30인 사진 앞 이근배 선생님

서울, 우리 문학을 빛낸 작가들의 산실

삼각산과 한강이 감싸고 있는 수도 서울은 먼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백두대간의 심장부였고 역사, 문화의 중심지였다. 더욱 1394년 조선왕조의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후 6백여 년 동안 서울은 문화예술의 산실이었고 시인묵객들의 촌락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앙집권적 양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신문, 출판, 잡지 등이 서울에 집결되어 시인, 작가들은 서울에 등지를 틀고 집필활동을 하게 되었다. 최남선, 이광수, 한용운, 오상순, 변영로, 김동인, 염상섭, 이태준, 정지용, 이상, 박종화, 이병기, 이은상 등 현대문학의 개척자들은 서울을 무대로 창작을 해왔다.

지난 세기 문인들의 숨결을 느끼며

육이오전쟁 등을 거치면서 보존되고 물려받아야 할 시인, 작가들의 옛집이 훼손되고 유실되었으나 한용운의 심우장, 이태준, 서정주의 고택을 비롯 오상순, 박인환, 김수영, 천상병, 이봉구 등의 일화가 살아있는 명동 그리고 영원한 거래의 화두요 글감이 되고 있는 사육신묘, 삼전도비와 영인문학관, 현대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등 이 나라 문학사를 경작해 온 큰 문인들의 문학의 혼불이 타고 있는 유적은 날로 새롭게 생소하며 문학의 향기를 좇는 이들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문학과 문화를 숭상하는 민족

1989년 러시아(그때는 구소련)를 처음 갔을 때 내가 감명 받은 것은 푸쉬킨 시, 고리키 역, 체호프 광장 등 지명이며 거리의 이름들이 시인, 소설가들로 되어 있으며 가는 곳마다 톨스토이, 마야코프스키 등 문학인들의 거대한 동상이 서있고 문화예술인들의 기념관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모스크바에 갔을 때 나는 작가들의 유적지를 탐방했는데, 시인 에세닌의 묘지를 찾았을 때는 쌓인 출고음산한 묘지에 시민들은 꽃을 바치고 시인들은 즉흥시를 써서 걸어놓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시집을 팔



고 있었다. 러시아어를 모르지만 나도 시집을 두 권 집어 들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경제적으로 피폐해서 구걸하는 소년들이 뒤를 따라다녔지만 문학과 문화를 숭상하는 시민들과 환경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정부가 사뭇 부러웠다.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세계 속의 문화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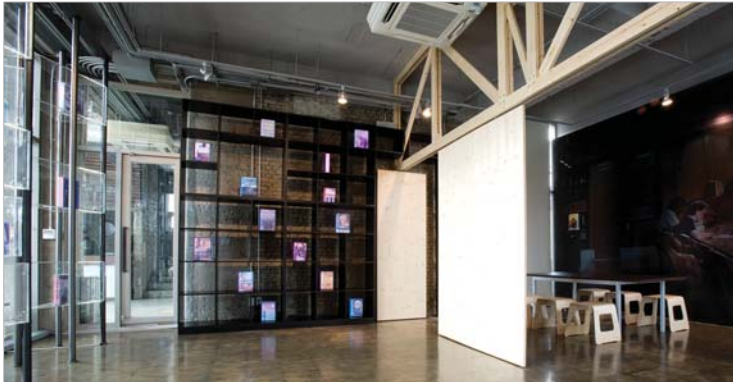
우리가 사랑하는 서울,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시인, 작가들이 문학혼을 불사른 시집과 소설에서 읽을 수 없는 생전의 일화와 숨은 이야기를 곁들이며 이 땅의 문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썼으며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를 문학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가슴에 담아보는 시간이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세계에 내세울만한 '문화도시'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혼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시민의 발길이 더 잦아져야 하겠으며 문학유산의 보존과 기념관의 건립도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글 이근배(시인, '문학의 문학' 주간)

WED	THU	FRI	SAT
		1 설치, 미디어 환승 ■ 한여름 청계천 예술여행 -청계천 보물찾기! (~8/25) ■ 어린이뮤지컬 '슈팅바쿠간' (~8/3)	2
6 ■ 탐방 ② 렛츠 고 아뜰리에1 (사유를 엮는 직조술 - 전수천작가의 아뜰리에)	7 ■ 탐방 ③ 박물관은 살아있다 (서울 닭 박물관, 가희 박물관)	8 번안극 리어왕 (~8/24) ■ 탐방 ④ 근대 건축 찾기(남산 2(표방! 자유!)) ■ 발레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강아지똥' (~8/17)	9 창작연극 그냥 그렇게:남은집 (~8/31)
13 가족극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왕자 (~8/31) ■ 탐방 ⑥ 캠퍼스 건축탐방 (연세대학교)	14 ■ 탐방 ⑦ 박물관에 말 걸기 (목인박물관, 떡 부엌 살림 박물관)	15 ■ 탐방 ⑧ 노름마치를 찾아서 (서울의 산대놀이들)	16 발레 문훈숙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발레 콘서트
20 ■ 탐방 ⑩ 렛츠 고 아뜰리에 (소소한 대상의 경이로운 아름다움 - 사진작가 최승훈, 박선인 부부)	21 ■ 탐방 ⑪ 박물관 산책 (초전섬유 킬트박물관)	22 ■ 탐방 ⑫ 문학 혼의 발자취 (서정주/봉산산방)	23 서예 한국서예협회 창립20주년 기념전
27 시각예술 한중미술교류전 -Tomorrow and the Day After	28	29 ■ 국립발레단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발레 '지젤' (~8/30)	30

서울문화재단 8월의 문화 캘린더

	SUN	MON	TUE
8 시민문예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그램 청계창작스튜디오 공연정보 서울열린극장창동 공연정보			
	3	4	5 ■ 탐방 ① 미술관의 새봄 (서울시립미술관 디지털 스펙트럼전, 한국추상회화)
	10	11 창작 창극 서도전통연희창극 유경담교(柳京踏橋) 놀이	12 ■ 탐방 ⑤ 이것이 공공미술이다 (지하철 내 공공미술)
	17	18	19 양화, 공예 제11회 화사랑전 ■ 탐방 ⑨ 미술관 나들이 (덕수궁 근대미술관)
	24 ■ 탐방 ⑬ Seoul's Historic Walks(건천궁과 칠궁) ■ 탐방 ⑮ 홍대 앞 재발견 (홍대일대 조망- 젊은 예술인과의 만남) ■ 어린이영어뮤지컬 'Five Fools' 31 ■ 탐방 ⑭ 대학로 연극 투어(서울연극센터)	25	26



CREATIVE SEOUL NEWS

‘문화가 있는 놀이터’ 디자인 공모

서울문화재단은 현대건설과 함께 『'08~'09년도 문화가 있는 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재단은 지난 3년간에 걸쳐 공공놀이터를 상상력 넘치는 공간으로 설정,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새로운 놀이터 디자인 개념을 개발해왔다. 또한 지난 2007년도부터는 현대건설과 함께 디자인 공모 및 시공을 위한 설계 개발에 착수하여 2008년 현재 5개 지역에 ‘문화가 있는 놀이터’가 시공되었다. 이번 2008년 공모전에서도 창의적이고 예술성이 넘치는 놀이터 디자인 아이디어로, 낡고 오래된 동네 놀이터를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디자인, 더 나아가 가족 및 사회 전반에 다양한 놀이터 활용 가능성을 부여하는 디자인을 선정해 놀이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참가자격은 국내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생 혹은 시각예술 및 놀이터 디자인 관련 분야 현업 종사자 또는 작가로, 접수는 8월 6일부터 27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서 진행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당선작에는 금상 1편 500만원, 은상 2편 300만원, 동상 2편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서울시가 '08~'10년 조성 계획 중인 ‘상상어린이공원’에 시공 제안되는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당선작 발표는 9월 17일이며, 출품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문의: 서울문화팀 02)3290-7045

청계창작스튜디오 수시대관 공고

서울시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의 일환 및 시각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에 있는 청계창작스튜디오에서 갤러리 유휴기간을 활용하여 수시대관을 접수한다. 사용기간은 2008년 7월말 ~ 9월말까지이며, 대관료는 77,000원이다. (부가세 별도. 이용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6시)

청계천의 지역적 특성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나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라면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이 가능하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청계창작스튜디오 사무실에 직접 방문 접수해도 된다.

문의: 청계창작스튜디오 02)2285-3392

즐거운 여름방학,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보내요!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한여름 청계천 예술여행 - 청계천 보물찾기』, 『책茶방』 방학가족 창작프로그램, 『대학로연극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서울의 숨겨진 문화예술 명소를 함께 찾아가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해, 특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 옛날이야기'라는 테마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 전문가(생각하는 박물관)의 설명과 함께 전문 강사들이 아이와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별도의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와 학부모로 구성된 1쌍 단위로 신청을 받아 총 30쌍을 선발하며, 선발된 참가자들은 '문예 탐방가'라는 타이틀을 부여받는다. 방학 맞이 문예 탐방단은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총 3회의 탐방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7월 18일까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통해 참가신청할 수 있다.

『한여름 청계천 예술여행 - 청계천 보물찾기』는 청계천에 설치된 과거 - 현대 예술작품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감상하고, 조형작품을 직접 제작해보면서 청계천을 자신의 시각으로 새롭게 재구성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뮤지엄 연구소와 청계창작스튜디오가 함께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9일에서 8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뮤지엄교육연구소 홈페이지(www.meme21.com)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참가비는 1인당 5천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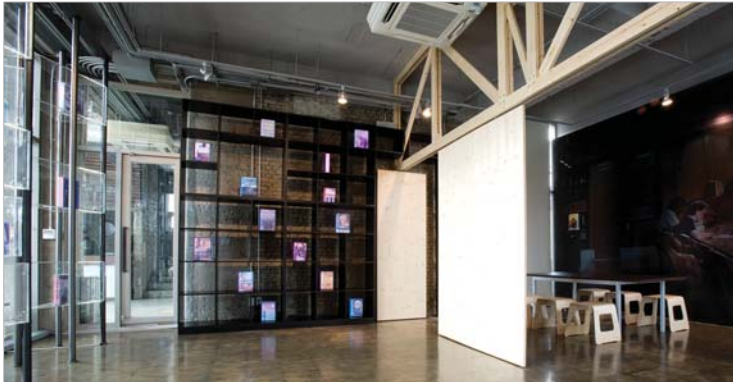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북카페, 『책茶방』에서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 나만의 상상 그림책을 만드는 방학가족 창작프로그램으로 동화구연가의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을 만드는 시간이다. '마침표 후의 이야기' (7, 8월 둘째주 월, 화요일), '알록달록 책에 옷 입히기' (7, 8월 넷째주 월, 화요일)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대상은 6세 이상 저학년 학생으로 가족단위로 접



수를 받는다. 참가 접수 및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참조.

『대학로 연극투어』도 8월 31일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우 오지혜의 진행으로 무대 뒤 공간을 체험하는 '아르코예술극장 백스테이지 투어'와 골목 곳곳에 숨은 작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이야기가 있는 대학로 산책', 연극 <프루프> 관람(14세 이상 관람가) 및 출연진, 연출가와의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다. 8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참조.





CREATIVE SEOUL NEWS

서울을 가로지르는 문화 오아시스, 서울문화재단의 홍보버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6월부터 재단 홍보버스 운영을 재개했다. <달리는 문화 오아시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버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정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8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어린이 창의 Arts - TREE' 등 재단 사업에 활용되어 시민들을 위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재단의 움직이는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반, 서울광장에 가면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그램 신청자들을 태우고 탐방 장소로 떠나는 홍보버스를 만나 볼 수 있다. 홍보버스는 앞으로도 메마른 도심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한 도서관 한 책읽기 프로그램 진행

서울문화재단의 『한 도서관 한 책읽기』 프로그램이 '서울은 고향이다 - 함께 사는 서울, 따뜻한 나의 도시'라는 주제로 올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독서활동, 독서토론 및 독서연계 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 지역민과 공공도서관을 이어주며,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시도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선정도서인 서울에서는 서민의 삶을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우리 동네는 시끄럽다」, 서울의 시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탐사를 통해 서울을 깊이 있게 논하는 「서울은 깊다」, 서울에 남은 다섯 궁궐을 돌아보며 우리의 역사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송내관의 재미있는 궁궐 기행」, 새터민 청소년 급희의 아오지에서 서울까지 7,000km의 탈북여정과 서울에서의 삶을 다룬 「급희의 여행」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전역의 시립 및 구립 도서관 63곳에서 진행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책 읽는 서울 사무국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팀 02-3290-7042)으로 문의 가능하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를 참조.



열린극장 창동, 8월에도 다양한 공연 열려

열린극장 창동은 8월 방학을 맞이해 다채로운 공연을 올릴 예정이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공연되는 어린이 뮤지컬 '슈팅바쿠간'은 인기 애니메이션 '슈팅바쿠간'을 뮤지컬로 만든 공연으로, 특수 분장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대화시켰다.

'발레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 강아지똥'은故 권정생 선생의 동화 '강아지똥'을 춤으로 만든 작품이다.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강아지똥이 민들레꽃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운 이치를 감동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 공연은 8월 8일에서 1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8월 24일에는 어린이 영어뮤지컬 'Five Fools'이 무대에 오른다. 'Five Fools'은 어린이 영어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라트어린이극장의 대표작으로 광대들의 좌충우돌 서커스 공연기를 다룬 어린이를 위한 코미디쇼다.

다양한 레퍼토리와 수준 높은 공연으로 한국적인 발레를 정착시킨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도 열린극장 창동을 찾는다. 이번에 다룬 작품은 낭만 발레의 상징인 '지젤'로, 8월 29일, 30일 양일간 공연될 예정이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열린극장 창동(02-994-1465)으로 문의 가능하다.



청계천 9가에 문화 랜드마크가 생긴다

서울문화재단 북 카페

책茶방 책사랑

● 시민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

우리시대 작가들을 일곱가지 빛깔로 만나보다

일정 : 5월~11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책사랑

- / 5월 21일 빨강 : 내 안의 아성을 찾아서 박범신 소설가
- \ 6월 11일 주황 : 낮 꿈꾸기 - 시와 함께 놀자, 꿈꾸면서! 김선우 시인
- / 7월 9일 노랑 : 음악이 있는, 문학에 대한 온갖 질문 김정환 시인
- \ 8월 6일 초록 : 소설 쓰기의 '무엇'과 '어떻게' 조정란 소설가
- / 9월 10일 파랑 : 나에게 꼭 맞는 소설 찾기 은희경 소설가
- \ 10월 8일 남색 : 시적인 공간과 시의 공간 함성호 시인
- / 11월 12일 보라 : 시인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시?! 유홍준 시인

● 어린이창작 프로그램

책 읽는 청계천, 책 만드는 어린이 "개천이 들려주는 이야기"

일정 : 6월~11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책茶방

● 방학 가족 프로그램

상상 그림책 만들기

"동화구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그림책이 된다"

일정 : 7월 14일(월)~15일(화), 28일(월)~29일(화) / 8월 11일(월)~12일(화), 25일(월)~26일(화) 오후 2시

장소 : 책茶방

■ 대관운영

'책사랑'은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 및 예술가들의 워크샵, 동아리모임, 소규모 출판기념회 등의 공간으로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관 신청방법 :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별도 신청서 작성

- 신청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또는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seoulbookcafe>)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이메일(jeungpill@sfac.or.kr) 신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fac.or.kr) 참조
- 문의 : 02-3290-7043(서울문화팀)

주관



후원





〈The Starlight-경주〉#20 경주, 경상북도, 2007, C-Print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한지영

130-823



문화서울

독자의견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책(《예술현장매뉴얼》시리즈, 《예술총서》 등) 1권을 보내드립니다.



www.sfac.or.kr

고속도로는 하이패스 충전하신 분들로
소통이 원활합니다



은행 중에서는
IBK 기업은행만 가능하다죠?

은행권에서는 처음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하이패스 카드 충전 단독 서비스

복잡한 톨게이트에서 차를 정차하셨다구요? 매번 홈페이지 접속이 귀찮으셨다구요? 이제 하이패스 카드는 IBK 기업은행에서 충전하세요. 전국 IBK 기업은행 지점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간단히 충전됩니다.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 구입도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활용 가능 ■ 놀이공원, 주유 등의 다양한 혜택



하이패스 카드도 역시 IBK 기업은행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08.10 | Vol. 20

